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치열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의 『서유기』 판본과 연구 현황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쑤위엔리(孙媛丽)

# 한국의 『서유기』 판본과 연구 현황

심치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쑤위엔리(孙媛丽)

# 인 준 서

孙媛丽的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1차적으로 『서유기』의 성행연구를 검토하여 작품의 가치를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유기』는 중국 명대에 나온 소설이지만 수백 년에 걸쳐 현재도 많은 이들의 애독 작품으로 인기가 높은 문학작품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한국에서도 고려 말에 이미 서유고사가 유입된 기록이 중국어 교과서 『박통사』에서 찾을 수 있어서 『서유기』에 대한 관심이 이미 오래 전부터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서유기』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누적되었음에도, 이를 집약하여 짚어보는 연구사 분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때문에 본고는 1970년 이후 지금까지 『서유기』와 관련하여 국내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여 『서유기』의 국내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체계화시켜 이후 관련 연구에 소박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통시적인 측면에서, 『서유기』가 한국에 유입되는 과정과 수용양상 등 『서유기』의 기초 연구 자료를 문헌기록 위주로 분석하였다. 다음 광복 이후 특히 197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표된 『서유기』 관련 논문의 연구 현황을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이후, 공시적인 측면에서, 2016년까지 발표된 『서유기』 관련 논문을 비교문학연구, 주제 및 사상 연구, 인물 연구, 텍스트 활용방안 연구, 기타 연구 등 주제별로 나누어 전반적인 연구의 방향과 특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서유기』 연구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우선 시간 순서대로 『서유기』의 한국 유입과정을 『박통사언해』 중에 「차치국투성」이라는 이야기와 조선 문인들의 남긴 문헌기록을 통해서 소개

하였다. 다음에는 『서유기』의 판본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유입된 중국 원판본을 민관동의 연구에 따라 다시 표로 정리하고 대표적인 판본 『서유진전』과 『회도증상서유기』 두 판본을 선택하여 차이점을 비교한 후에 한글 번역본의 서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유기』가 한국에 유입된 후에 시대별과 주제별의 연구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광의적이고 개관적인 측면에서 시기별로 ‘광복이전, 광복이후~80년대, 90년대, 2000년 후’로 구분하여 연구 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연구의 흐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 시대별의 연구 경향을 토대로 『서유기』의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들은 협의적이고 세분적인 측면에서 연구 경향을 주제별로 ‘비교문학, 주제 및 사상, 등장인물, 문화콘텐츠, 기타’로 구분하여 그 후 발전된 학제 간 연구결과와 과정을 순차적으로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서유기』 연구 특징을 중국의 『서유기』 연구추세와 비교를 통하여 『서유기』의 문학적 가치를 검토하였다. 즉, 중국의 비해 한국의 연구방향은 비교문학, 수용양상, 주제 및 사상, 공간연구 분야에서 심화된 분석이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서유기』 작품의 연구 결과물을 통해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3
II. 『서유기』의 수용 양상 .....	6
1. 『서유기』의 유입 및 수용 양상 .....	6
2. 『서유기』 판본의 이해 .....	12
1) 중국 판본 도입 .....	12
2) 국문 번역본의 서지 .....	27
III. 『서유기』의 시대 및 주제별 연구 현황 .....	29
1. 시대별 연구 현황 .....	29
1) 광복 이전 연구 .....	29
2) 광복 이후~80년대 연구 .....	32
3) 90년대 연구 .....	34
4) 2000년 이후 연구 .....	37

2. 주제별 연구 현황 .....	41
1) 비교문학 연구 .....	42
2) 주제 및 사상 연구 .....	50
3) 등장인물 연구 .....	54
4)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	67
5) 기타 연구 .....	69
IV. 『서유기』 연구의 한국적 특징과 의미 .....	72
V. 결론 .....	78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표와 그림 목차

〈표1〉 중국 원판본 『서유기』가 한국에 소장된 상황 .....	14
〈표2〉 『서유진전』과 『회도증상서유기』의 목차상의 차이점 .....	17
〈표3〉 『西遊眞詮』과 『繪圖增像西遊記』에 실린 삽화의 인물 .....	20
〈표4〉 광복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발표된 논문 .....	33
〈표5〉 90년대에 발표된 논문 .....	35
〈표6〉 2000년 후에 발표된 논문의 수량 .....	38
〈표7〉 『서유기』의 형성과정과 판본 관련 연구논문 .....	40
〈표8〉 『서유기』의 비교문학 관련 연구논문 .....	42
〈표9〉 『서유기』의 주제 및 사상 관련 연구논문 .....	51
〈표10〉 『서유기』의 등장인물 관련 연구논문 .....	55
〈표11〉 『서유기』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	67
〈표12〉 『서유기』 공간 및 구조 등 관련 연구 .....	69
〈표13〉 『서유기』 연구 논문 수량 통계 .....	72
〈그림1〉 『西遊眞詮』 여래불 상 .....	21
〈그림2〉 『西遊眞詮』 여래불의 찬사 .....	21
〈그림3〉 『繪圖增像西遊記』 여래불 상 .....	21
〈그림4〉 『西遊眞詮』의 당생 .....	22
〈그림5〉 『繪圖增像西遊記』의 당생 .....	22
〈그림6〉 『西遊眞詮』의 사오정 .....	22
〈그림7〉 『繪圖增像西遊記』의 사오정 .....	22
〈그림8〉 『西遊眞詮』의 우마왕 상 .....	24

<그림9> 『繪圖增像西遊記』의 우마왕 상 .....	24
<그림10> 『繪圖增像西遊記』 제1화 앞에 삽화1 .....	26
<그림11> 『繪圖增像西遊記』 제1화 앞에 삽화2 .....	26
<그림12> 『서유기』 논문 수량 증장도 .....	72
<그림13> 『서유기』 주제별 논문 수량도 .....	73

# I. 서론

## 1. 연구 목적

『서유기』는 명대 학자였던 오승은(吳承恩)<sup>1)</sup>에 의해 완성된 백회본(百回本) 신마(神魔)소설이다. 『서유기』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은 제1회부터 제7회까지로 손오공의 탄생과 학습과정 그리고 천궁(天宮)에서의 소란(騷亂)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제8회부터 제12회까지로 당 삼장 출생의 비밀과 출가(出家), 당 태종이 저승을 구경하는 내용 및 당승이 서천(西天)으로 떠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제13회부터 제100회까지 해당하며 당 삼장,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과 백룡마(白龍馬)로 구성된 취경단(取經團)이 서천으로 경을 구하러 81년을 극복하고 경을 구해서 돌아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서유기』는 중국 명대 사대기서(四大奇書) 중 하나로 청대 대표적 소설 『홍루몽』이 나타난 이후에 사대명저(四大名著)<sup>2)</sup>로 꼽히기도 하였다. 또한 중

---

1) 오승은(吳承恩)은 자(字)는 여충(汝忠), 호는 사양산인(射陽山人)이고, 회안부(淮安府) 산양(山陽)(지금의 江蘇省 淮安縣)사람이다. 어려서부터 기이한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때 읽은 많은 괴기한 이야기와 야사들이 이후 그의 『서유기』 창작에 기초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문(詩文)에 능했는데 관운이 없어 일생 제대로 된 벼슬을 하지 못했다. 47세, 60세, 66세 때 세 차례 관직에 있었지만 모두 한직(閑職)이었다. 『서유기』는 그가 만년에 집에서 지내면서 쓴 작품으로 여겨진다. 『서유기』 작가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승은(吳承恩)(1500년-1582년)이 百回本 소설 『서유기』의 작가라는 호적(胡適)과 노신(魯迅)의 연구 결과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추세이고 독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도 동일한 시각을 갖고 진행하기로 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서유기』 작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吳著說'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서 부정했다. '非吳著說'을 지지하는 학자는 있지만 지금에는 구체적인 작가가 누구인지 다 동의하는 정확한 답이 없는 상태이다. 한국 학계에는 대부분이 '오승은설'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거의 각 논문마다 작가를 소개할 때 혹은 서론부분에 『서유기』 개황을 서술할 때 간단하게 언급하는 방식이다.

2) 명대 사대기서는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 장편소설을 가리킨다. 사대기서의 이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淸 李漁의 「古本三國志序」 중에 "馮猶龍亦有四大奇書之目, 曰『三國』也, 『水滸』也, 『西遊』與『金瓶梅』也"라는 기록이다.  
중국 고대 소설의 집대성의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홍루몽』를 가리킨다. 淸 초에는

국 신마소설의 최고봉, 동양적 판타지의 원조로 현대에도 문학의 보물창고로 평가되고 있다. 『서유기』가 그리는 공간은 천상부터 지옥까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물 또한 신불부터 요마까지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인물들로 가득하다. 이처럼 『서유기』는 탁월한 환상성과 신괴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중국은 물론 동양을 대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이러한 증거로 중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서유기』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기타 다양한 장르로 변모<sup>3)</sup>되어 향유되어 사대기서 중에 가장 많이 개편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인 2015년 여름에 田曉鵬의 애니메이션 ‘大聖歸來’가 개봉되었고, 더우반왕(豆瓣網)<sup>4)</sup>에서 8.2이라는 높은 평점을 얻기도 하였다. 본 연구자는 『서유기』가 현대에서도 유용한 문학적 생명력을 지닌 동양의 대표적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에서의 인지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도대체 『서유기』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원인을 밝히려는 작업이 본 논문을 쓰게 된 동기이자 목적이다.

중국에서는 『서유기』에 대한 연구가 1919년 5·4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부터 『서유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 박사논문 6편, 석사논문 21편, 학술지 논문 70여 편 등 상당한 분량이 축적되었다. 1970년대부터 국문학계에서 시작한 『서유기』와 한국고소설간의 비교연구는 『서유기』 연구의 첫걸음이고, 1980년대에 들

---

정부는 『금병매』를 음란소설로 여겨서 금서(禁書)를 지정해서 사대기서 중에서 빼 버렸다. 그 후에 『홍루몽』이 나타나서 당시 사람들은 『홍루몽』이 『금병매』와 비슷한 세정소설로 생각해서 다시 새 사대기서를 만들었다. 사대명저는 사대기서의 현대적인 이름이다.

3) 陳延榮, 「『서유기』影視改編研究」, 華東師範大學, 73쪽. (2012년까지 중국(홍콩과 대만포함)에서 『西遊記』에 관한 개편작품이 80개있다.) 2012년 후에 개편 상은 2016년 01월 13일에 北京晚報(北京)의 ‘西遊電影9部待映 『서유기』 養活多少電影公司’라는 제목의 뉴스를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정립해 왔다. 2013년 설날 때 周星馳감독님의 ‘西遊降魔篇’, 2014년 설날 때 鄭保瑞 감독님의 ‘西遊記之大鬧天宮’, 2015년 여름에 田曉鵬감독님의 애니메이션 ‘大聖歸來’, 2016년 음력 정월 초일에 상영한 ‘西遊記之三打白骨精’ 등이 있다. 2016년에 개봉된 영화는 ‘西遊降魔篇2’, ‘大唐玄奘’, ‘悟空傳’, ‘敢問路在何方’, ‘大話西遊3’이 있고 개봉 예전이 되는 애니메이션은 ‘悟空’과 ‘大聖歸來2’ 등이 있다.

4) <https://movie.douban.com/subject/26277313/>

어와서 중문학계도 『서유기』를 소설로서 작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주제연구, 인물형상 연구, 형성과정과 판본연구, 구조연구,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나왔지만 한국의 『서유기』 연구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미흡한 반면, 『서유기』와 같이 사대명저로 손꼽히는 『홍루몽』은 한우상에 의해서 그 연구 현황이 정리된 바 있다.<sup>5)</sup> 물론 나선희에 의해 번역된 일본 학자 磯部 彰<sup>6)</sup>의 논문이 있으나 이는 중국의 연구사와 일본의 연구사를 구분하였고 아쉽게도 한국의 연구 성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그간 다각도로 연구된 『서유기』에 대한 연구 현황을 검토하여 『서유기』 작품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연구의 현주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서유기』의 매력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서유기』의 매력 원천과 문학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다. 『서유기』는 중국소설이지만 동일한 동아시아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2016년까지 다양한 수량의 연구물이 나왔는데 중국의 연구 성과에 비해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질적인 면에서 깊이 있는 분석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고는 지금까지 『서유기』의 연구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연구사를 논문 방향으로 삼아 1970년 후에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위주로 분석하여 한국학계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서유기』의 연구 성과를 체계화시켜, 후에 『서유기』 연구의 소박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5) 한우상, 「韓國的『紅樓夢』研究概況」, 嶺南대학교 중문과 석사논문, 2016년.

6) 磯部 彰(이소베 아끼라), 「『서유기』形成史의 研究」, 創文社, 1993년.

『서유기』가 학문적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고전소설과 비교 혹은 영향관계를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 등록된 1970년 후에 한국 학자들과 한국에 유학하여 학위를 받은 중국유학생들이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를 연구하여 발표한 석, 박사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자는 고전소설 전공자이기 때문에 『서유기』의 어학적, 음운학적인 연구 등은 배제시키고, 문학적 접근과 관련된 논문만을 연구범위로 산정한다. 또한 중국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발표한 중국어로 된 연구물은 포함시키지 않지만 중국문학을 전공한 한국어로 된 한국 학자들의 연구물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한국의 『서유기』 연구 현황을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II장에서 『서유기』의 수용 양상은 한국에 유입된 과정과 판본의 문제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유입과정은 역사기록에 실려 있던 문헌에 따라 소개하고자 한다. 그 후 『서유기』가 한국에 유입된 중국 판본과 한글 번역본의 양상에 대한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

III장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서유기』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광의 측면에서 시기별로 '광복이전, 광복이후~80년대, 90년대, 2000년 후'로 구분하여 연구 경향을 간략하게 살펴봄과 동시에 연구의 흐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시대별 연구 경향을 토대로 협의의 측면에서 주제별로 『서유기』의 연구 경향을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 후 발전된 학제 간 연구결과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자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IV장은 전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서유기』 연구의 한국적인 특색에 대해 중국 서유기 연구사와 비교함으로써 『서유기』의 문학적 가치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V 장은 결론으로 위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여 본 논문의 부족한 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중국에 출판된 『西遊記』<sup>7)</sup>를 원문 텍스트로 삼고, 한국에서 번역된 『서유기』<sup>8)</sup>(10권)을 보조 텍스트로 진행할 것이다.

- 
- 7) 吳承恩 著, 李飛天 校注, 『西遊記』(상, 하권), 中華書局, 2014년 10월. 이 판본은 최신의 백회본 『서유기』의 판본으로써 주로 명대의 세덕당본을 저본으로 삼고 이탁오 비평본과 『서유증도서』 등을 참조해서 원문 중에 나타난 틀린 부분을 고치고 최대한 저본의 모습을 보완하는 기초 위에 부족한 내용을 추가해서 간행된 통행본이다. 현재 판본 중 선본이라고 판단된다.
- 8) 吳承恩 著, 서울대학교 서유기번역연구회 번역, 『서유기』(10권), 솔 출판사, 2004년 2월. 이 번역은 타이완의 이인서국(里仁書局)에서 나온 이탁오 비평본 『서유기교주』를 저본으로 삼고, 상해고적출판사 및 북경인민출판사 등에서 나온 세 종류의 다른 판본을 참고하되, 이탁오의 이름으로 된 평점은 생략하고 이야기 본문만 번역한 것이다.

## II. 『서유기』의 수용 양상

『서유기』는 중국에서 조선시대에 유입된 소설이다. 즉 조선시대부터 독자층이 두터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고, 동일한 한자권이기 때문에 독서 환경에도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 만큼 한국에서 『서유기』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많은 문학작품에 영향을 미쳤으며, 독서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서유기』 텍스트의 유입 과정과, 텍스트로 자리를 잡은 후 당시 문인들의 학문적 논평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후 『서유기』의 판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서유기』의 유입 및 수용 양상

조선시대에 『서유기』를 포함한 중국고전소설은 당시 문인들의 관심을 받아 문인들의 번역과 논평을 통해서 당시의 독자들에게 알려졌다. 그 당시 문인들은 중국고전소설 자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전소설 문학을 더불어 성장시켰다.

『서유기』가 조선에 유입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서유기』에 관한 최초의 문헌 기록은 바로 조선시대에 중국어를 가르친 교과서인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sup>9)</sup> 하권에 실려 있던 『고본서유기』의 한 대목인 「車遲國鬪聖」이다. 『고본서유기』는 오승은의 백회본 『서유기』의 모본으로 인정하는 주장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sup>10)</sup> 현재 일실된 상황이지만 현재에 복

9)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년.

10) 정규복, 「『서유기』와 한국고소설」, 아세아연구 제48호, 1972년 12월, P.114. 정규복은 孟瑤의 『중국소설사』 415쪽의 원문을 각주에 인용하고 그의 주장을 동의해서 『서유기』를 소개하

경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永樂大典』에 「夢斬涇河龍」 대목과 『박통사언해』의 「車遲國鬪聖」 이 두 대목만 남았는데, 이 두 자료가 『고본서유기』의 존재를 입증해주는 뿐 아니라 『서유기』의 형성과정 연구에 대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車遲國鬪聖」은 백회본 『서유기』의 제 46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唐僧往西天取經去時節，到一箇城子，喚做車遲國，那國王好善，恭敬佛法，國中有一箇先生，喚伯眼，外名喚燒金子道人，見國王敬佛法，便使黑心，要滅佛教，但見和尚，便拿着曳車解鋸，起蓋三清大殿，如此危害三寶，一日先生們，做羅天大醮，唐僧師徒二人，正到城裏智海禪寺投宿，聽的道人們祭星，孫行者，師傅上說知，到羅天大醮壇場上藏身，奪喫了祭星茶果，却把伯眼打了一鐵棒，小先生到前面教點燈，又打了一鐵棒，伯眼道，這禿廝好沒道理，便焦燥起來，到國王前面告未畢，唐僧也引徒弟去到王所，王請唐僧上殿，見大仙打罷問訊，先生也稽首迴禮，先生對唐僧道咱兩箇冤讎不小可裏，三藏道，貧僧是東土人，不曾認的，你有什么冤讎，大仙睜開雙眼道，你教徒弟，壞了我羅天大醮，更打了我兩鐵棒，這的不是大讎，咱兩箇對君王面前鬪聖，那一箇輸了時，強的上拜爲師傅，唐僧道，那般着伯眼道 起頭坐靜，第二橫中猜物，第三滾油洗澡，第四割頭再接，說罷，打一聲鍾響 各上禪床坐坐，分毫不動，但動的便算輸，大仙徒弟名鹿皮，拔下一根頭髮，變做狗蚤，唐僧耳門後咬，要動禪，孫行者是箇胡孫，見那狗蚤便拿下來磕死了，他却拔下一根毛衣，變做假行者，靠師傅立的，他走到金水河裏，和將一塊青泥來大仙鼻凹裏放了，變做青母蝎 脊背上咬一口，大仙叫一聲，跳下床來了，王道唐僧得勝了，又叫兩箇宮娥，擡過一箇紅漆櫃子來，前面放下，着兩箇猜裏面有甚麼，皇后暗使一箇宮娥，說與先生櫃中有一顆桃，孫行者變做箇焦苗虫兒飛入櫃中，把桃肉都喫了，只留下桃核出來，說與師傅，王說 今番着唐僧先猜 三藏說是一箇桃核，皇后大笑猜不着了，大仙說是一顆桃 着將軍開櫃看，却是桃核 先生又輸了，鹿皮對大仙說，咱如今燒起油鍋入去洗澡，鹿皮先脫下衣服，入鍋裏 王喝保的其

---

였다. 그 후에 한국의 학자들은 거의 다 정규복의 의견을 따랐다.

間, 孫行者念一聲唵字, 山神土地神鬼都來了, 行者教千里眼順風耳等兩箇鬼, 油鍋兩邊看着, 先生待要出來拿着肩膀彪在裏面, 鹿皮熱當不的, 腳踏鍋邊待要出來, 被鬼們當住出不來, 就油裏死了, 王見多時不出時, 莫不死了麼, 教將軍看, 將軍使金鉤子, 搭出箇爛骨頭的先生, 孫行者說, 我如今入去洗操, 脫了衣裳, 打一箇跟斗, 跳入油中, 纔待洗澡, 却早不見了, 王說將軍你搭去. 行者敢死了也, 將軍用鉤子搭去, 行者變做五寸來大的胡孫, 左邊搭右邊越, 右邊搭左邊去, 百般搭不着, 將軍奏道, 行者油煎的肉都沒了, 唐僧見了啼哭, 行者聽了跳出來, 叫大王有肥棗麼. 與我洗頭, 衆人喝保佛家贏了也, 孫行者把他的頭, 先割下來, 血漉漉的腔子立地, 頭落在地上, 行者用手把頭提起, 接在脖項上依舊了, 伯眼大仙也割下頭來, 待要接 行者念 金頭揭地 銀頭揭地 波羅僧揭地之後, 變做大黑狗, 把先生的頭拖將去 先生變做老虎趕, 行者直拖的王前面彪了 不見了狗也, 不見了虎, 只落下一箇虎頭, 國王道元來是一箇虎精, 不是師傅 怎生拿出他本像, 說罷, 越敬佛門, 賜唐僧金錢三百貫 金鉢盂一箇 賜行者金錢三百貫打發了. 這孫行者正是了的, 那伯眼大仙, 那裡想胡孫手裏死了, 古人道, 殺人一萬, 自損三千.<sup>11)</sup>

11) 『朴通事諺解』(영인본), 서울大學校奎章閣 출판, 2004년. P.P.300~315 인용함. 이상익,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박사논문, 1980, P.65 재인용. (唐僧이 西天을 향해 經을 가지러 갈 제, 한 城에 가니 車遲國이라 부르는지라. 저 國王이 善을 좋게 여겨 佛法을 공경하더라. 國中에 한 先生이 있되 伯眼이라 부르고 外名은 燒金子道人이라 부르나니, 國王의 佛法 敬함을 보고 문득 검은 마음을 부려 佛教를 滅하고자 하여 무릇 중을 보면 곧 잡아 수레 끌게 하고 톱질을 하게 하여 三清大殿을 지으니 이렇듯이 三寶를 보채더라. 一日에 先生들이 羅天大醮를 하더니 唐僧의 師徒 二人이, 正히 城안 智海禪寺에 가서 들어가 道人들의 祭星함을 듣고 孫行者 스승에게 일러 알게 하고 羅天大醮하는 壇場 위에 가 몸을 감추어 祭星하는 茶果를 앗아 먹고, 또 伯眼을 잡아 한 쇠막대로 치니 伯眼이 이르되 이 머리 민 놈이 가장 道理 없다 하고, 곧 怒하여 일어나 國王의 앞에 가 告하기를 마치지 못해서 唐僧이 또 徒弟를 데리고 王의 곳에 이르니 王이 唐僧을 請하여 殿에 올린대, 大仙을 보고 문기를 마치매 先生도 稽首하고 廻禮하더라. 先生이 唐僧을 대하여 이르되, 우리 둘이 冤讎 직지 아니하니라. 三藏이 이르되 貧僧을 東土 사람이라 일찍 아지 못하니 네 무슨 冤讎가 있다 하느냐? 大仙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르되 네 徒弟로 하여 우리 羅天大醮를 헤쳐 버리고 또 우리를 두 번 쇠막대로 치니, 이것이 큰 원수가 아닌가? 우리 들이 君도 앞을 대하여 鬪聖하여 아무나 하나가 지거든 나은 이를 拜하여 스승을 삼자. 唐僧이 이르되, 그리 하자. 伯眼이 이르되, 으뎀은 앗기를 靜히 하고, 둘째는 槽中에 것을 알고, 셋째는 끓는 기름에 목욕하고, 넷째는 머리 베어 다시 잇기를 하자. 이르기를 마치매 한 소리 종을 치고 각각 禪床에 올라앉기를 定하고 分毫도 動하지 않아, 무릇 動하는 이를 곧 진이로 헤니라. 大仙의 徒弟, 鹿皮라 이름 하는 이가 한날 머리털을 빼어 변하여 개벼룩이 되어 唐

이상은 『박통사언해』 하권에 「車遲國鬪聖」이라는 제목으로 손행자와 당 삼장 둘이 車遲國에서 伯眼大仙, 제자 鹿皮와 법력을 이용하여 총 네 번째 斗聖하는 이야기다. 내용은 백회본 『서유기』의 제 46회와 상당히 유사하다.

僧의 귀 뒤를 물어 禪을 動하고자 하거늘, 孫行者는 잔나비라 저 개벼룩을 보고 곧 잡아 내려와 짓이겨 쳐 죽이고, 그도 또 한날 털을 뽑아 변하여 거짓 行者가 되어 師傅에게 의지하여 세우고, 그는 金水河에 달려가 한 덩이 푸른 흙을 이겨 가져다가 大仙의 콧구멍에 놓으니 변하여 푸른 암 전갈이 되어 등을 한 번 문니 大仙이 한 번 소리 지르고 床에 뛰어 내려지니, 왕이 이르되, 唐僧이 이겼다. 또 두 宮娥를 불러 한 붉은 칠을 한 櫃를 들여오라 하여 앞에 놓고 둘로 하여 안에 무엇이 있는고 알라 하니, 皇后가 가만히 한 宮娥를 시켜 先生더러 櫃 가운데 한날 복숭아가 있다 일렀더니, 孫行者가 변하여 한 딱정벌레 되어 날아서 櫃 가운데 들어가 복숭아 살을 다 갉아 먹고 다만 복숭아 씨만 머물어 두고 나와 師傅더러 일렀더니, 왕이 이르되 이번은 唐僧으로 먼저 알게 하라 하였다. 三藏이 이르되 한 복숭아 씨로다. 皇后가 크게 웃으며 알지 못하였다. 大仙이 이르되 이는 한날 복숭아로다. 將軍으로 하여 櫃를 열어 보니 또 복숭아씨라. 先生이 또 졌다. 鹿皮가 大仙을 대하여 일으키 우리 이제 기름 가마에 불 때고 들어 가 沐浴하자. 鹿皮가 먼저 옷을 벗고, 가마에 드니, 왕이 혀 찰 사이에 孫行者가 한 소리 「唵」字를 念하니 山神과 土地神鬼가 다 오거늘 行者가 千里眼과 順風耳등 두 鬼神으로 하여, 기름가마 양 쪽에서 보아 先生이 나오자 하거든 어깨를 잡아 안에 들이치라 하였더니, 鹿皮가 더움을 당하지 못하여 발로 가마의 갓을 디디고 나오고자 하다가 귀신들이 막음을 입어 나오지 못하여 기름에서 죽으니, 왕이 오래 나오지 아니함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닌가)하여 將軍으로 하여 보라 하니 將軍이 쇠갈고리로써 한물 녹아 뼈만 있는 先生을 건져 내니, 孫行者가 이르되 내 이제 들어가 목욕하리라 하고 옷을 벗고 한번 跟蹤질하여, 뛰어 기름 가운데 들어가 갓 목욕하고자 하더니 벌써 보지 못할러라. 왕이 이르되 將軍아 네 건지러 가라. 行者가 죽은 듯하다. 將軍이 갈고리로 써 건지러 가니, 行者가 변하여 五寸만치 큰 잔나비가 되어 좌편으로 건지려하면 우편으로 숨고, 우편으로 건지려 하면 좌편으로 가매, 백가지로 하되 건지지 못하니, 장군이 여쭙워 이르되 行者가 기름에 지져 살이 다 없더이다. 唐僧이 보고 울더니 行者가 듣고 뛰어 나와 大王을 불러 비누 있느냐? 나를 주어 머리 감게 하라. 모든 사람이 혀 차고 佛가가 이겼다 하더라. 孫行者가 제 머리를 잡아 먼저 베어 내리치니 피 떨어지는 몸둥이만 땅에 서고, 머리 떨어져 땅에 있더니. 行者가 손으로써 머리를 잡아 일으켜 목 위에 이으니 옛과 같은지라 伯眼大仙도 머리를 베어 내려와 잇고자 하거늘 行者가 金頭揭地와 銀頭揭地와 波羅僧揭地를 念한 후에 변하여 큰 검은 개 되어 先生의 머리를 잡아 끌어 가져 가니, 先生이 변하여 호랑이가 되어 따르거늘 行者가 바로 끌어 왕의 앞에 들이치니 개도 보지 못하고 또 범도 보지 못하고 그저 한 범의 머리만 떨어졌으니, 국왕이 이르되 본대 이는 한 虎精이라 하였다. 이 師傅가 아니면 어찌 저 本像을 잡아내리오. 이르기를 마치매 더욱 佛門을 敬하여 唐僧을 金돈 三百貫과 金바릿대 하나를 주고, 行者를 金돈 三百貫을 주어 打發하니 이 孫行者는 正히 옳았다. 저 伯眼大仙이 어디 胡孫의 손에 죽을 줄을 생각하리오. 고인이 이르되 사람 一萬을 죽이면 스스로 三千을 損한다 하니라.) 본 논문에서는 『박통사언해』의 影印本을 직접 열람한 결과 이상의 논문에서 소개된 내용 중 오자, 탈자 등을 더러 발견하여 바로잡았다.

『박통사언해』는 조선 숙종 3년에 朴世華 등 12인이 간행하였고, 『박통사』는 고려말기(1347년)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sup>12)</sup> 역관을 위한 중국어 교과서이다. 『박통사』는 현전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의 『박통사언해』는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서유기』 작품 유입이 고려말기로 소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朴通事』의 刊年 推定이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洪武年間 즉 고려말로 넓게 잡는 데 그치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서유기』의 한국 전래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된다. 즉 『서유기』는 고려말에 이미 단편적이거나 한국에 소개가 되었고 그 『서유기』는 명대 오승은이 쓴 『서유기』가 아니라 원대에 있었던 『고본서유기』였다는 立論을 뒷받침해 준다.<sup>13)</sup>

하지만 이는 『고본서유기』의 유입 기록으로 오승은의 백회본 소설 『서유기』가 유입된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 문인 許筠, 沈錫, 李圭景, 李德懋 등의 논평 기록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민관동의 연구에 따라 최초의 논평기록은 조선중기 허균(1569-1618년)의 『惺所覆瓿稿』에 언급된 사실로 보아 1500년대 후기나 1600년대 초기로 짐작할 수 있다.<sup>14)</sup>

당시 문인들의 『서유기』에 대한 평가는 주로 ‘취미성, 수려하고 우아한 문장체, 교묘한 문체와 기발하고 변화무쌍한 문학성’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서유기』중에 나타나는 ‘학문의 無益性, 정사를 어지럽히고 사악한 마음을 들게 하는 점, 황당함’을 부정하는 평가로 나뉘 볼 수 있다.<sup>15)</sup> 긍정론의 학자는 허균, 심재, 李晩秀를 들 수 있고, 부정론의 학자는 김춘택, 이덕무가 있었다.

우선 긍정론에 해당하는 조선중기의 문인 허균(1569-1618년)은 『惺所覆瓿稿』에서 『서유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12) 민관동, 「『서유기』의 국내유입과 판본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23집, P.219 참조.

13) 이상익,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박사논문, 1980, P.130 참조.

14) 민관동, 위의 논문, P.219 참조.

15) 민관동, 위의 논문, P.220 참조.

내가 戲家의 소설 수십 중을 보았는데……[中略]…… 『西遊記』는 宗藩의 『玄奘取經記』를 근거로 부연하여 지은 것으로, 그 이야기는 대개 『釋譜』와 『神僧傳』 등에서 나온 것 같다. (그 내용은) 믿음과 의심의 중간을 취하였다. 그런데 그 책은 특히 수련의 뜻을 중지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승이 왕이 좌선하여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 등이 그러하다. 老祖宮이 단약을 흠치는 것은 黍珠를 삼킴이요, 天宮에서 소동을 피우는 것은 煉念이며, 스님을 모시고 서쪽으로 가는 것은 河車를 운반함이요, 火炎山 紅孩는 곧 불 원승이며, 黑水通天河는 즉 부적을 물리치는 원승이다. 서쪽에 이르렀다가 동쪽으로 돌아오니 西虎가 東龍과 만남이고, 하루에 西天 十萬里 길을 돌아가니 천수를 일시에 모음이다.”라고 여겼다. 비록 지리하나 그 언어가 웅장하지 않고 갖가지 丹訣을 빌어 말을 세웠으니 굳이 없앨 것은 없다. 내가 다만 이것을 가지고 진리를 닦는 여가에 권태로 우면 이것으로 졸음을 막는다.<sup>16)</sup>

위의 인용문은 바로 허균이 『서유기』의 내용을 소개한 후에 『서유기』의 문학성을 인정하면서 졸음을 방지할 만큼 흥미성을 갖추었음을 말한 부분이다. 그 후에도 『서유기』의 수려하고 우아한 문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조선 후기 문인 심재, 이만수를 꼽을 수 있다. 심재는 『서유기』가 “문장은 機軸이요, 패서 가운데 모두가 손꼽는 것이다. (文章機軸, 稗書中大家數也.)” 라며 문장에 대한 극찬을 하였고, 이만수는 “이 책이 이와 같은 문자의 변환을 구비하고 있는지 몰랐다. (不圖此書, 能具文字之變幻也)” 라며 문체의 수려함과 교묘함을 높이 평가하였다.<sup>17)</sup> 이로 볼 때 『서유기』는 오히려 다른

16) 허균, 『惺所覆瓿稿』,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간, 권13, 서유록발, P.137 참조. 민관동, 「『서유기』의 국내유입과 판본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23집, 2006년, P.219 재인용.

“余得戲家說數十種……[中略]……有西遊記云, 出於宗藩, 卽玄奘取經記而衍之者. 其事蓋略見於釋譜及神僧傳. 在疑信之間 而今其書特假修煉之旨, 如猴王坐禪, 卽煉己也. 老祖宮偷丹, 卽吞黍珠也. 大鬧天宮, 卽煉念也. 侍師西行, 卽搬運河車也. 火炎山紅孩, 卽火候也. 黑水通天河, 卽退符候也. 至西而東, 還卽西虎交東龍也. 一日而回西天十萬路, 卽攢族周天數於一時也. 雖支離漫衍, 其辭不爲莊語, 種種皆假丹訣而立言也. 固不可廢哉. 余特存之, 修真之暇卷則以攻睡魔焉.”

사대기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셈이다.

부정론을 펼친 문인은 김춘택, 이덕무 등으로 『서유기』를 부정하는 이유로 대략 소설의 無益性, 정사를 어지럽히고 사악한 마음을 들게 하는 점, 황당함 등을 지적하였다. 먼저 김춘택은 『北軒集』에서 『서유기』가 “아무리 풍자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又何等風致 然終於無益而已.)” 라는 표현으로 『서유기』의 무익함을 주장하였고, 이덕무는 “이런 잡서는 정사를 어지럽히고 마음을 사악하게 하느니라.(此等雜書 亂正史 壞人心.)” 라며 『서유기』를 부정적으로 보았다.<sup>18)</sup> 하지만 이는 『서유기』 한 작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유학자들의 부정적 소설관을 반영한 것이다. 즉 당대 유학자들은 소설의 허구성을 진실에서 벗어난다고 하여 소설을 폄하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文'이란 문학작품이 아닌 사서삼경에 해당되는 경서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기』의 논평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문인들이 대체적으로 『서유기』의 문학성을 인정해준 것으로 짐작된다.

## 2. 『서유기』 판본의 이해

### 1) 중국 판본 도입

『서유기』는 소설로 완성되기 전에 수백 년 동안 여러 문인들의 가공을 걸쳐 형성된 문학 대작이라서 판본이 상당히 많다. 『서유기』의 형성에 영향을 준 서유고사와 관련된 작품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唐代 고승 현장법사가 天竺國을 다녀오면서 불경을 가져온 역사적

17) 민관동, 앞의 논문, P.221 참조.

18) 민관동, 앞의 논문, P.222 참조.

내용이 담긴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이고, 둘째는 현장의 제자들이 스승의 사적을 칭송하는 전기문인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이고, 셋째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허구적이고 신격화로 발전시킨 宋代의 『大唐三藏取經詩話』가 있고, 넷째는 현재에 일실되었지만 『영락대전』과 『박통사언해』에서만 부분 내용을 산견할 수 있는 元대의 『고본서유기』(또 일명 『西遊記平話』)이다. 다섯째는 『고본서유기』를 바탕으로 단편 희곡들의 내용을 융합시킨 明代의 잡극 『서유기』로 총 24出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백회본 『서유기』의 형성과정의 마지막 단계라 말할 수 있다.<sup>19)</sup>

명대 후기는 이렇게 장편의 문학작품 기초 위에 소설 창작의 번영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선, 명나라 중엽 嘉靖 연간에 楊至和의 4권 44본 『西遊記傳』(世稱 양본)이 나왔고, 그 다음에 朱鼎臣의 10권 67회본 『西遊釋厄傳』(세칭 주본)이 출현한 후에 명 萬曆 임진년 1592년 여름에 오승은의 백회본 소설 『서유기』(오본)가 南京의 서방 世德堂에서 발간되었다.<sup>20)</sup> 명대의 대표적인 판본은 주로 앞에 언급하는 양본, 주본, 오본이 있었다.

청대에 들어와서 『서유기』에 대해 평점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시기의 특징이고 당시에 『서유기』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기도 하였다. 사실은 명말 崇禎 연간에 『서유기』를 평점한 『李卓吾先生批評西遊記』<sup>21)</sup>(이평본을

19) 홍성초, 「『서유기』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 중어중문학과 석사논문, 2004년, P.P.52~72 참조.

20) 박춘영, 「『西遊記』의 成書過程과 主要 人物形象 研究」, 숭실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5년, P.144 참조.

21) 『李卓吾先生批評西遊記』(李評本)는 중국에서 오래 전에 일실된 판본이지만 프랑스, 영국, 일본의 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다. 중국은 1980년대에는 민간 소장가의 손에서부터 이평본의 藏本을 사와서 영인본을 출간해서 현재에 볼 수 있다. 이평본에서 표명된 평점을 한 사람이 명대의 사상가, 문학가인 이지(李贄)이지만 현재에 발견된 증거에 의해 이지가 아니고 엽주(葉晝)라는 학자가 이지의 명을 빌리고 평점을 하는 판본이다. 이평본은 『서유기』의 형성과정사와 학술사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 우선 이평본은 예전의 판본들의 잘못을 한 글자씩 잘 교정 해주어서 세덕당본 나온 후에 제일 선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평본은 『서유기』의 평점을 성숙해지는 대표를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상접하의 역할도 경비해서 청대의 『서유기』의 평점의 번성기를 열기 시작한다. 竺洪波, 「四百年西遊記學術史」,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2005년, P.P.42~51 참조.

약칭함)는 이미 나와서 승상점하의 역할을 하였고, 청대에는 『서유기』의 평점이 번성기를 누렸다. 청대에 대표적인 널리 유행한 판본은 평점을 하는 사람에 따라 汪象旭의 『西遊證道書』<sup>22)</sup>, 陳士斌의 『西遊眞詮』, 張書紳의 『新說西遊記』, 劉一明의 『西遊原旨』, 張含章의 『通易西遊正旨』 총 5종이 있다.<sup>23)</sup> 하지만 이 판본들 중에 진사빈의 『서유진전』은 『서유증도서』의 飜刻本으로써 『서유기』의 三大 통행본의 최고의 자리를 잡고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소장된 판본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유기』가 다양한 판본을 지니게 되었고, 이중 한국에 유입된 판본이 각 도서관에 소장된 중국 原板本 11개의 서지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4)</sup>

서명	저자 및 평자	판본	분량	시기	소장처
『西遊眞詮』	吳承恩(명)撰 陳世斌(淸)詮解	序：康熙丙子 (1696) 尤侗撰 紙質：竹紙 中國木刻本	100회 20 책	淸 乾隆47년(1782) 敦化堂刊	高麗大
				淸 咸豐2年(1852) 上海 掃葉山房刊	成均館, 高麗大
				淸 光緒10년(1884) 上海 掃葉山房刊	成均館, 연세대(19 冊殘本)
				淸 光緒10년(1884) 校經山房刊	高麗大
				간행년 미상 金聖嘆 加評 淸 芥子園刊	영남대
				淸대 후기간 간행처 미상	성균관대, 이화여대,

22) 『西遊證道書』는 청대 최초의 『서유기』 판본으로 제일 큰 특징은 바로 명대의 판본 기초 위에 당삼장의 출생 이야기 “江流和尚”의 내용을 예술적으로 처리하여 처음으로 추가해서 『서유기』를 더 완성시킨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 竺洪波, 앞 논문, P.60 참조.

23) 홍수진, 「『서유기』의 판본 및 국내유입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 석사논문, 2007년, P.15 참조.

24) 민관동, 「『서유기』의 국내유입과 판본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23집, 2006년, P.P.224~226. 본 연구자가 민관동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澗松本, 연세대
			100회 36 책	康熙병자년(1696)序 10행 22자 康熙병자년(1696)後 印 翠筠산방간행 11행 24자	高 敝 玄 谷 書 院  성균관대
			100회 24 책	康熙병자년(1696)序 11행 24자	전북대
				康熙병자년(1696)序 敬業堂간	고려대
				金聖嘆 加評 청 芥子園刊 9행 24자	한중연
				청대 후기간 간행처 미상	연세대 奎 章閣
『繡像西遊 記』	吳承恩(명)撰 陳世斌(淸)詮解 淸光緒11年 (1885) 上海 掃葉山房 刊	序：康 熙 丙 子 (1696) 尤侗撰 光緒乙酉(1885) 朱記榮 中國木刻本	전 20권 본	四周單邊, 11행 24자, 上黑魚尾	建國大, 啓明大, 高 麗 大 登
			10冊 殘 本		영남대
			19冊 殘 本 ( 권 50-54산 실)		고려대
『繪圖增像 西遊記』	吳承恩(명)撰 陳世斌(淸)詮解	序：康 熙 丙 子 (1696) 尤侗撰 中國石版本	8책	淸 光緒19年(1894) 上海 換文書局刊	고려대
		序：康 熙 丙 子 (1696) 尤侗撰 中國活字本	10책	淸 光緒辛卯年 (1891) 上海 廣松百齋刊 17행 32자	부산대
『增像全圖 加批西遊 記』	吳承恩(명)撰 陳世斌(淸)詮解	序：康 熙 丙 子 (1696) 尤侗撰 中國石版本	8책	淸 光緒庚子年 (1900) 源記書莊刊 19행 43자	연세대
		序：康 熙 丙 子	殘本	청말	전북대

		(1696) 尤侗撰 中國木版本	(5권 2책)	上海 錦章圖書局刊 27행 52자	
『繪圖增批 西遊記』	吳承恩(명)撰 陳世斌(淸)詮解	序：康熙 丙子 (1696) 尤侗撰 中國石版本	8권 8책	淸말 上海 錦章圖書局刊	이화여대
『繪圖批點 西遊記』	吳承恩(명)撰 陳世斌(淸)詮解	中國石版本	10권10책	淸말 上海 會文堂 新記書局刊(간행년 미상)	고려대
『繡像西遊 記全傳』	吳承恩(명)撰 楊致和, 趙毓眞 (淸)同校	中國木版本	4권 2책	淸대 繡谷錦盛堂刊 (간행년미상)	성균관대
『增圖加批 西遊記』	吳承恩(명)撰		10권10책	1910년 福章記書局刊	全南大
『新說西遊 記』	吳承恩(명)撰	中國石版本	殘本15冊 (1-4回缺 失)	淸 同文原版	고려대
『新說西遊 記圖像』	吳承恩(명)撰 張書紳注	序：光緒 14 年 (1888) 中國石版本	8책	淸 光緒14년(1888) 味潛齋刊	奎章閣
『西遊記』	吳承恩(명)撰 愴漪子(淸)評	中國木版本	殘本 2 冊 (권1,2)	淸후기 同盛堂刊行 12행 28자 裏題：繡像西遊記眞 詮	부산대

<표1> 중국 원판본 『서유기』가 한국에 소장된 상황

표에서와 같이 현존하는 『서유기』의 중국 原板本은 거의淸대의 陳世斌이 詮解해준 목각본을 위주로 한 『西遊眞詮』의 판본이 제일 많다. 이것도淸대에 『西遊眞詮』의 유행하는 정도를 엿볼 수 있다. 한국 도서관에 소장된 『서유기』는 대부분淸말에 나온 판본들로 그림이 포함된 繡像, 繪像 『서유기』가 많다. 그림이 포함된 판본은 독서의 과정을 배려한 출판자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 판본은 거의 상해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당시에 상해는 이미 출판계의 중심지가 된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sup>25)</sup>

본 연구자는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중국 원판본 『西遊眞詮』<sup>26)</sup>과 『繪圖增

25) 민관동, 앞의 논문, P.227 참조.

26) 吳承恩(明)撰 陳士斌(淸)註解, 『西遊眞詮』, 中國木版本, 발행지불명, 校經山房, 光緒10년

像西遊記』<sup>27)</sup>를 대상으로 판본간의 차이를 간략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두 판본은 다 吳承恩(明)이撰하고, 陳士斌(淸)이註解를 하고 尤侗이序를 쓴 『西遊眞詮』의 복각본으로 삽화가 있는 판본들이지만 비교를 해보면 차이점이 있다. 우선 미미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는 목차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目錄	『西遊眞詮』(繡像西遊記)	『繪圖增像西遊記』	차이
第4回	官封弼馬心何足 名注天齊意未甯	官封弼馬心何足 名注齊天意未甯	‘天齊’와 ‘齊天’
第9回	陳光蕊赴任逢災 江流僧復讐報本	陳光蕊赴任逢災 江流僧復讐報本	‘蕊’와 ‘蕊’
第12回	佞奘秉誠建大會 觀音顯像化金蟬	玄奘秉誠建大會 觀音顯像化金蟬	‘佞’과 ‘玄’
第13回	陷虎穴金星解厄 雙嶺伯欽留僧	陷虎穴金星解厄 雙叉嶺伯欽留僧	‘嶺’와 ‘叉’
第22回	八戒大戰流沙河 木叉風發售悟能	八戒大戰流沙河 木吒風發售悟能	‘叉’와 ‘吒’
第35回	外道施威欺正性 心猿獲寶伏邪魔	外道施威欺正性 心猿獲寶伏邪魔	‘獲’과 ‘獲’
第48回	魔弄寒風飄大雪 聖僧拜佛履層冰	魔弄寒風飄大雪 僧思拜佛履層冰	‘聖僧’과 ‘僧思’
第51回	心猿空用千般計 水火無功難煉魔	心猿空用千般計 水火無功難鍊魔	‘煉’과 ‘鍊’
第62回	滌垢洗心惟掃塔 縛魔歸正得修身	滌垢洗心惟掃塔 縛魔歸正乃修身	‘得’과 ‘乃’
第65回	妖邪假設小雷音 四衆皆逢大厄難	妖邪假設小雷音 四衆皆遭大厄難	‘逢’과 ‘遭’
第66回	諸神遭毒手 彌勒□□□	諸神遭毒手 彌勒縛妖魔	목차에만 빠지고 원문에서 있음.
第71回	行者假名降怪吼 觀音顯像伏妖王	行者假名降怪吼 觀音顯像伏妖王	‘吼’와 ‘吼’

(1884), 冊1-19(第20冊缺) 插圖, 四周單邊, 半郭 20.8 x 14.4 cm, 無界, 半葉 11行 24字, 上黑魚尾 ; 23.5 x 15.7 cm, 標題: 繡像西遊記 序: 康熙丙子(1696)...尤侗撰序 刊記: 光緒甲申(1884)良月校經山房校刻

27) 吳承恩(明) 著;陳士斌(淸) 銓解, 『繪圖增像西遊記』, 石印本, 上海 廣百宋齋, 光緒17(1891)年, 冊1-12 ; 20 x 13.4 cm, 序: 康熙丙子(1696)...西堂老人尤侗撰序 刊記: 光緒辛卯(1891)上海廣百宋齋校印

第79回	尋洞擒妖逢老壽 當朝正主見嬰兒	尋洞擒妖逢老壽 當朝正主救嬰兒	‘見’과 ‘救’
第88回	禪到王華施法會 心猿木土授門人	禪到玉華施法會 心猿木土授門人	王華는 목차에 쓴 것고 원문 중에 玉華라고 씀.
第90回	師獅授受同歸一 盜到躔禪靜九靈	師獅授受同歸一 盜到纏禪靜九靈	‘躔’과 ‘纏’
第97回	金酬護外遭磨毒 聖顯幽魂救本原	金酬外護遭魔毒 聖顯幽魂救本原	‘護外’와 ‘外護’ ‘磨’와 ‘魔’
第100回	徑回東土 三聖成真	徑回東土 五聖成真	‘三聖’과 ‘五聖’

<표2> 『서유진전』과 『회도증상서유기』의 목차상의 차이점

위의 표는 두 판본의 목차의 차이점을 보인다.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두 판본의 목차상은 사소한 차이가 보인다. 거의 ① 거꾸로 쓴 글자, ② 발음이 같지만 모양이 다른 글자, ③ 다르게 생겼지만 뜻이 같은 단언, ④ 잘못 쓴 글자의 네 경우가 있다. 즉 제 4, 97회가 ①의 경우가 해당되고, 제 9, 12, 13, 22, 35, 51, 71, 90회가 ②의 경우가 해당되고, 제 62, 65회가 ③의 경우를 당하고, 제 48, 66, 79, 88, 97, 100회가 ④의 경우가 해당한다.

위에서 목차상 단순비교를 하였지만, 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서유진전』 보다는 『회도증상서유기』의 판본이 대표적인 善本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가 텍스트로 삼은 중국 『서유기』<sup>28)</sup>의 목차 역시 『회도증상서유기』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유진전』과 『회도증상서유기』는 모두 삽화가 포함된 판본이지만 삽화에 대한 차이점도 많다. 『서유진전』은 총 20人정도 등장인물을 그리고 각 인물의 화상 뒤면에 이 인물의 평을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20인의 평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如來佛: 又清又淨是佛之祖 能使心猿終歸正果-玉湖釣叟

28) 吳承恩 著, 李飛天 교주, 『西遊記』(상, 하권), 中華書局, 2014년.

- ② 李老君：爐以八卦名 八卦成五行 五行去陰陽之精 故須煙內添真火 煉出一  
雙火眼金睛-紫霞散仙
- ③ 唐太宗：貞觀之間都是夢 夢中怡識鬼門苦 幽冥倩聖僧超度 却好那西竺真  
經 正歎為金蟬付-覽非子汜
- ④ 魏征：魏公嫵媚 飛鳥依人 吾及將斬 豈畏批鱗-梵洲跌客
- ⑤ 당승：心即是佛 佛即是心 心直衆妙 體備五行 普度幽靈無盡 只因西土得  
金徑-友鶴道人
- ⑥ 손오공：此心也 放之則彌六合 斂之則藏於密 魔由心造 亦由心滅 心涵大  
化故須悟乎 空而會貞元於太一-保和老人
- ⑦ 저팔계：總緣長釘鈿 變化見天機 心損舍性強 0獨木龍盡 不是人間伏牲 種  
一寶長生定相思--情淨画禪
- ⑧ 沙僧：好箇和尚 亦秉元神 金從木順 工豈異倫 五行之用 妙合而凝 九宮渾  
化 二土成真 聖胎結就 保護取經-步傳氏題
- ⑨ 鎮元仙：丹樹滅丹種絕 靈根如何不珍惜 大仙袖裏弄機關 卻把那靈根斷而  
復植 還我貞原善果斯得-指迷老人
- ⑩ 鳥巢禪師：西天雖遠終須列 受得多心經可知 消除魔障自具無窮妙 急宜赴  
西路奚怪禪師笑-林逸上人
- ⑪ 二郎神：小聖如何降大聖 恃摧跋扈却就把神通逞 堪笈功成復命若無細犬  
那能勝-滄江釣翁
- ⑫ 托塔李天王：以鏡照妖而狀自莫遁怎又有無底洞裏女兒惹出心猿一番大鬧-  
柳溪居士
- ⑬ 金星：卻收邪心而心有定位 徒以虛位置之 則心仍離乎其位 雖招安而安於  
何在-保真散人
- ⑭ 牛魔王：凡魔皆牛也 曰此牛尚少一變 牛字題門 不出頭-秋溪牧叟
- ⑮ 鐵扇公主：固雌風也，而雄自不兢兢，自餘獅吼，何怕牛魔。只我为玉面寒  
心之甚-蓬萊逋客
- ⑯ 紅孩兒：試問小兒可識造化弄人 圈套先戴尔罷合掌當心曰怕-梵洲跌客
- ⑰ 黃袍怪：奎宿為魔工巧佞 只憐那金蟬迷城自墮昧 邪正怎莫竟離去 心猿一

任妖氛亂真性-雲汀漁子

⑱ 獅子精: 一窩獅子怪狡竊器顯神通 却說那九頭獅降習妙巖 官若0化邪歸正  
請訪主人公-微石山人

⑲ 蜘蛛精: 忽訝盤絲嶺 行行又在前 總是一盤迷局 千絲亂天下 聚陰精作障  
緣全憑吾性定七情 那得破真禪-巖棲逸士

⑳ 狢精: 金鈴原是金丹質 墮魔乎張魔力 力古而有得 而失有無得 失俱成光源  
悟還丹黍妙術-波鳩野叟

위에 『서유진전』은 본문 앞에 『서유기』의 20개의 주요인물의 사적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평가하는 讚辭이다.

『회도증상서유기』는 『서유진전』보다 32개의 인물의 화상을 추가해서 총 52개가 들어가지만 이 인물에 대한 평을 쓰지 않는다. 등장인물은 불교신불(7개), 도교신선(17개), 일반인간(14개), 요괴(14개)의 순서대로 배정된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로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다.

판본	『西遊真詮』	『繪圖增像西遊記』 <sup>29)</sup>
등장인물	如來佛, 李老君, 당태종, 魏征, 당승, 손오공, 저팔계, 沙僧, 鎮元仙, 鳥巢禪師, 二郎神, 托塔李天王, 金星, 牛魔王, 鐵扇公主, 紅孩兒, 黃袍怪, 獅子精, 蜘蛛精, 狢精	보살: 如來佛, 寶幢王菩薩, 須彌靈吉菩薩, 阿彌陀佛, 觀世音菩薩, 阿難尊者, 迦葉尊者, 金頂大仙 신선: 玉帝, 托塔李天王, 木吒行者, 哪吒三太子, 二郎神, 巨靈神, 鳥巢禪師, 西王母, 李老君, 太白金星, 葛仙翁, 龍王, 摩昂, 地藏王, 閻羅王, 崔判官 인간: 唐太宗, 魏征, 蕭瑀, 殷開山, 金山長老, 陳光蕊, 殷溫嬌, 唐三藏, 孫行者, 豬八戒, 沙和尚, 袁守誠, 高太公, 相良 요괴: 黑熊精, 黃風怪, 紅孩兒, 龜怪, 蝎子怪, 六耳獼猴, 牛魔王, 鐵扇公主,

		白眼魔君, 蜘蛛怪, 大鵬怪, 鹿怪, 九頭獅子精, 黃獅精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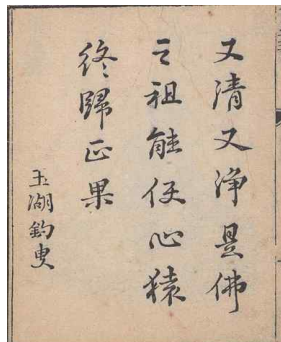
<표3> 『西遊眞詮』과 『繪圖增像西遊記』에 실린 삽화의 인물

위에 표를 통해서 『繪圖增像西遊記』는 제목에서도 반영하듯이 ‘增像’이라는 단어가 바로 화상을 증가하는 뜻이어서 묘사된 인물이 더 확대되어 32개의 인물의 화상을 증가했다. 하지만 화상을 증가하는 동시에 인물에 대한 찬사를 삭제했다.

또한 그림의 질적인 면을 살펴보면 『繪圖增像西遊記』(아래 회도를 약칭함.)와 『西遊眞詮』(아래 진전을 약칭함)은 인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같은 인물이지만 화상의 양상은 사소한 차이도 있다.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두 판본에 모두 해당되는 인물 화상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두 판본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여래불의 화상은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그림1> 『西遊眞詮』 여래불



<그림2> 『西遊眞詮』찬사



<그림3> 『繪圖增像西遊記』 여래불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西遊眞詮』은 인물의 화상과 인물의 찬사가 있고 『繪圖增像西遊記』는 단지 화상만 있는데 모두 앉은 자세로 『진전』에서는 손에 한 송이의 연꽃을 들고 있고 『회도』에서는 머리 위에 여래불을 타고 있는 大鵬을 함께 그려주었다.

두 판본에서의 화상 중에 차이가 좀 뚜렷한 또 하나의 인물은 바로 唐僧이

29) 『繪圖增像西遊記』 중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인물이 밑줄로 표시된다.

다. 아래와 같다.



<그림4> 『西遊真詮』의 당승



<그림5> 『繪圖增像西遊記』의 당승

앞에 그림은 인물의 형상이 거의 같지만 옷과 배경이 좀 다르다. 『진전』에서 당승이 늘 타고 다니는 白馬도 함께 그리고 있는 반면, 『회도』에서는 단 당승만 그려졌다. 그리고 당승의 복식 이미지도 다르게 표현되었다.

앞에 두 인물형상은 배경과 복식 같은 사소한 차이가 있는 반면 다음에는 인물형상을 완전히 다르게 묘사된 경우도 있다.

첫째는 취경단의 一員인 沙僧이다.



<그림6> 『西遊真詮』의 사오정<sup>30)</sup>



<그림7> 『繪圖增像西遊記』의 사오정

30) 大聖依言, 即將戒刀與他剃了頭 (中略) 三藏見他行禮, 真像個和尚家風, 故又叫他做沙和尚.(오승은, 위의 책, P.318.) 제천대성이 삼장법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계도를 가져다 그의 머리를

위 그림을 보고 나서 차이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머리 부분이다. 『진전』에 사오정은 머리카락이 없는 반면 『회도』에는 머리카락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오정의 모습은 본문의 묘사를 통해서 좀 여볼 수 있다. 『서유기』 제22회 “八戒大戰流沙河 木叉奉法收悟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오정에 대한 시를 통해서 묘사를 해주었다.

머리는 온통 화영처럼 시뻘건 털로 더부룩하고 방울 같은 두 눈은 등잔처럼 번쩍거리네.  
 검지도 푸르지도 않은 푸르딩딩 칙칙한 얼굴에 우레 같고 북소리같이 높은 용의 소리를 내네.  
 몸에는 아황색 망토를 걸치고 허리엔 새하얀 등껍질 띠 두 갈래 모아 질끈 동였네.  
 목에는 해골바가지 아홉 개를 늘어뜨리고 손에 든 보물 지팡이, 무시무시하기도 해라.<sup>31)</sup>

一頭紅焰發蓬松，兩只圓眼亮似燈。  
 不黑不清藍靛臉，如雷如鼓老龍聲。  
 身披一領鵝黃氈，腰束雙攢露白藤。  
 項下骷髏懸九個，手持寶杖甚崢嶸。<sup>32)</sup>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오정은 원래 머리카락이 있는 형상 바로 『회도』에 나타난 이미지와 같다. 하지만 이 회에 마지막 부분은 사오정은 불문에 歸依한 뒤에 바로 머리카락을 깎고 중이 되어서 또 『진전』에 그려

꺾아주었어요. (중력) 삼장법사는 그가 배례하는 모습이 스님들 법도와 하나 다를 게 없음을 보고, 그를 또 사화상沙和尚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吳承恩 저, 『서유기』 제3권, 서울대학교 서유기번역연구회 번역, 솔 출판사, 2004년, P.79.) 이처럼 그림의 형상을 서사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1) 오승은 저, 서울대학교 서유기번역연구회 번역, 『서유기』 제3권, 솔 출판사, 2004년, P.56.

32) 吳承恩 저, 『서유기』(상권), 중화서국, 2014년, P.307.

진 이미지와 같다. 그리하여 서유『진전』과 『회도증상서유기』에서 있는 사오정에 대한 화상을 작품 전 후반의 형상의 차이일뿐 모두 사오정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이 두 판본의 인물 화상이 완전 다르게 그려진 인물은 牛魔王이다.



<그림8> 『西遊眞詮』의 우마왕 상



<그림9> 『繪圖增像西遊記』의 우마왕 상

위의 두 개 그림은 牛魔王을 완전히 다르게 그려놓았다. 『진전』에서 牛頭와 똑 같이 그린 반면에 『회도』에서 사람의 얼굴과 같이 그린다. 같은 인물이지만 완전히 다른 형상이 나온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서유기』 제 60회 “牛魔王罷戰赴華筵，孫行者二調芭蕉扇” 중에 우마왕의 외모와 본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묘사를 한다.

우마왕은 걸음을 옮겨 서재를 나와 대청에 올라 갑옷을 가져다 입었어요. 그리고 혼철곤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가 크게 소리쳤어요.

“어떤 놈이 이 곳에서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손오공이 옆에 있다가 그의 모습을 보니, 오백 년 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머리에는 잘 닦아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강철 투구를 썼고 몸에는 수놓은 비단에 용모를 댄 황금 갑옷을 입었고 발에는 끝이 말려 있고 바닥은 흰 노루가죽 신을 신었고 허리에는 세가 탁으로 꼰 실에 사자 모양 매듭이 있는 띠를 묶었네. 두 눈은 밝은 거울같이 빛나고 두 눈썹은 붉은 무지개처럼 아

름답구나. 입은 시뻘건 대야 같고 이빨은 구리판처럼 나 있구나. 외치는 소리 진동하니 산신도 두려워하고 위풍 있는 행동거지 악귀도 놀라는구나. 사해에서는 혼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서방에서는 대력마왕이라 부른다네.<sup>33)</sup>

好魔王，拽開步，出了書房，上大廳取了披掛，結束了，拿了一條混鐵棍，出門高叫道：“是誰人在我這裏無狀？” 行者在旁，見他那模樣，與五百年前又大不同，只見：

頭上戴一頂水磨銀亮熟鐵盔，身上貫一副絨穿錦繡黃金甲，足下踏一雙卷尖粉底麂皮靴，腰間束一條攢絲三股獅蠻帶。一雙眼光如明鏡，兩道眉豔似紅霓。口若血盆，齒排銅板。吼聲響震山神怕，行動威風惡鬼慌。四海有名稱混世，西方大力號魔王。<sup>34)</sup>

그리고 제61회 “豬八戒助力敗魔王 孫行者三調芭蕉扇” 중에서도 우마왕의 原身을 묘사하는 말이 있다.

우마왕은 킬킬 웃으면서 원래 모습, 즉 커다란 흰 소로 돌아왔어요. 머리는 높은 고개같이 뾰족하고, 눈은 번쩍번쩍 빛나는 듯했지요. 뿔은 두 개의 철탑인 양 솟았고, 이빨은 날카로운 칼을 늘어놓은 것 같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길이는 천 길이 넘고, 발굽에서 등까지 높이가 팔백 길도 넘었어요.<sup>35)</sup>

牛王嘻嘻的笑了一笑，現出原身：一只大白牛，頭如峻嶺，眼若閃光，兩只角似兩座鐵塔。牙排利刃。連頭至尾有千餘丈長短，自蹄至背有八百丈高下。<sup>36)</sup>

33) 오승은 저, 앞의 책, 제6권, P.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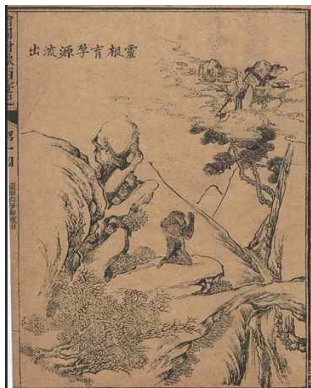
34) 吳承恩 저, 앞의 책, P.777.

35) 오승은 저, 앞의 책, 제7권, P.42.

36) 吳承恩 저, 앞의 책, P.792.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우마왕의 원신이 소이고 본상이 사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의 형태가 사람과 똑 같고 아니면 人身牛頭인가에 대한 원문 중에 구체적인 묘사가 없다. 두 판본의 요괴들의 화상을 비교해보면 『진전』은 요괴를 그릴 때 항상 동물의 원신과 가까이 그린 편이고 『회도』는 요괴를 원신의 형상을 잘 보일 수 없는 거의 사람과 같은 본상으로 묘사한 특징을 알 수 있다. 우마왕의 화상은 바로 이 특징을 잘 반영하는가에 이다.

인물의 화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繪圖增像西遊記』는 『西遊真詮』보다 본문 중에 매회의 시작 전에 본 회의 중요내용을 포괄적으로 그린 그림 2장이 등장한다. 내용의 삽화가 다음과 같이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림10> 『繪圖增像西遊記』  
제1화 앞에 삽화1



<그림11> 『繪圖增像西遊記』  
제1화 앞에 삽화2

위 그림은 『서유기』 제1화의 손오공의 출신이야기와 학습과정을 그린 것이다. 한 회의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독자에게 한 눈에 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림도 문장 못지않게 독서의 한 방면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회도증상서유기』가 화상 및 삽화가 상대적으로 『진전』에 비해 다양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 2) 국문 번역본의 서지

다음으로 국내 판본 및 필사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유기』의 중국 원판본은 다 白話로 쓰여진 것이어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에 당시 조선에서는 소설 독자를 위해서 『서유기』를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서유기』의 최초 번역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문헌상의 기록은 1762년 完山李氏(사도세자)가 序文을 쓴 『中國小說繪模本』에 80여 종의 중국소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유기』가 보인다. 또한 한글 필사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786년에서 1790년에 걸쳐 온양 정씨가 필사한 『玉駕再合奇緣』 권15의 표지 안쪽에 적힌 소설목록과 洪義福(1794 ~ 1859)의 第一奇諺 번역본 서문 등이 있다.<sup>37)</sup>

방각본으로는 京板 『서유기』와 華山新刊 『서유기』 2책이 전하고, 구활자본으로는 1913년 제1권과 제3권은 博文書館에서 제2권은 朝鮮書館에서 朴健會에 의해 발행한 것이 있으나 대개 제1회에서 제35회까지의 미완본이다.<sup>38)</sup>

현재 완역본으로는 『서유기』의 한글 번역 필사본이 연세대, 계명대, 영남대, 성균관대, 단국대 등에 소장되고 있다.<sup>39)</sup> 그 중에 연세대 소장 『서유기』는 『서유기』의 가장 善本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외에도 『서유기』의 일부 내용인 제 10회~12회의 내용을 주로 번안한 『당태종전』과 白話文으로 쓰여진 『서유기』의 어려운 문장, 단어 등의 주석에 해당하는 『西遊記語錄』<sup>40)</sup>도 있다.

『당태종전』은 『서유기』의 제10회부터 제12회까지의 당태종에 관련된 내

37) 김장환, 박재연, 김영 교주, 『서유기』, 鮮文大學校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5년, 머리말.

38) 김장환, 박재연, 김영 교주, 위의 책, 머리말.

39) 박재연, 「계명대 소장 한글필사본 번역 고소설 『서유기』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60호, 2010년, P.460 참조.

40) 백두용, 『서유기어록』, 1책, 京城翰南書局, 1918년.

용을 토대로 변안한 소설로, 원전인 『서유기』와는 다소의 縮約과 誇張 등 부분적인 개작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당태종전의 판본은 경관 방각본으로 紅樹洞에서 1858년에 판각한 『唐太宗傳』(26장본)이 있고, 그 후에는 동양서관(1915년, 1917년), 新舊書林(1917년), 翰南書林(백두용: 1920년, 1921년), 匯東書館(1926년), 東洋大學堂(1926년) 등에서 출판되었다.<sup>41)</sup>

이처럼 중국판본이 조선에 유입되어 『서유기』의 존재를 알리고, 소설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가장 주목할 만한 『서유기』가 국문으로 완역되면서 『서유기』의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다.<sup>42)</sup>

---

41) 민관동, 「『서유기』의 국내유입과 판본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23집, P.231.

42) 오승은 저, 『서유기』(10권), 서울대학교 서유기번역연구회 번역, 솔 출판사, 2004년 2월.

### Ⅲ. 『서유기』의 시대 및 주제별 연구 현황

앞장에서 『서유기』의 국내 유입과정과 유입된 판본, 그리고 번역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 자료들은 근대에 들어와서 『서유기』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유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문인들의 논평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근대에 들어와서 특히 광복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서유기』의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이후에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서유기』의 연구현황은 광복이전, 광복이후부터 80년대까지, 90년대, 2000년 이후 네 단계를 나누기로 한다. 이 분류 방법은 단순한 연도의 구분이 아니라 연구 방법 및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해서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연구 자료를 제시하면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시대별 연구 현황

##### 1) 광복 이전 연구

근대에 들어와서 일제시기에는 중국소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서유기』 연구의 출발은 양건식(1899-1944)과 김태준에 의해 시작되었다.

먼저 양건식은 1917년 5월에 <조선불교총보>에서 “소설 『서유기』에 취하여”라는 논평을 통해 『서유기』의 종교의미를 강조하고 특히 불교의 교화

작용을 『서유기』 “其內容이 巧妙한 喻比로 以하여 奇談怪譚이 百回에 亶하는 大小說로 唐僧현장이 西域諸國에 遊行하여 구경한 事實을 依憑하여 吾人의 性情을 爲하여 解脫의 方便을 設하며 佛說의 理致를 釋하여” 43) 라고 소개하였다. 특히 불교를 진흥시킬 시기이기 때문에 『서유기』의 좋은 번역본을 추천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목적을 밝혔다. 이 짧은 논평은 학술적 논문은 아니지만 『서유기』의 좋은 번역본을 찾고자하는 문학적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그 후 1930년대에 들어와서 김태준은 『조선소설사』 44)에서 『서유기』의 풍부한 내용을 한국 고전소설 작품들과 단순 비교하여 제시했다.

- ① “「홍길동전」은 (중략) 병 속에 가루가 되어도 오히려 살아 있다는 것은 西遊記 第七十五回와 文함(吻合)하고...” 45)
- ② “현종 10년에는 벌써 『수호』, 『서유기』 속에서 백화(白話), 난구(難句)만을 채집하여 「소설어록해」를 지어 출판하였다.” 46)
- ③ “허균이가 발(跋)을 지은 『서유기』도 ‘唐, 玄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北宋 『당삼장취경시화』(唐三藏取經詩話: 譚詞); 金, 『서유기』(院本 『唐三藏』); 元, 오창령(吳昌齡), 잡극 『당삼장서천취경』(唐三藏西天取經); 明, 오승은(吳承恩) 『서유기』’와 같이 여러 번 변천을 해서 된 것이니 당 현장이 불경을 取코자 천축국에 향하여 야자국(嗚子國), 사자국(獅子國), 수인국(樹人國), 구룡지(九龍池), 귀자모국(鬼子母國), 여인국(女人國), 왕모지국(王母池國), 우바라국(優鉢羅國)을 경유하여 견문한 사실에 환상을 加하여 변화해탈(變化解脫)의 리(理)를 설명한 것이다.” 47)

43) 양건식, 「조선불교총보」, 朝鮮佛敎業報 제3호, 1917년 5월, P.48.

44) 김태준, 『조선소설사』, 淸進書館, 1933년.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년.

45) 김태준, 위의 책, P.89.

46) 김태준, 위의 책, P.96.

47) 김태준, 위의 책, P.P.97~98.

- ④ “북헌은 ‘『서유기』, 『수호전』은 기변굉박(奇變宏博)하다’ 라고 평하며...” 48)
- ⑤ “지상의 낙원과 천상의仙境(仙境)이 혼동된 상태는 멀리 『목천자전』, 『한무제내전』, 당(唐)대 소설 특히 『유의전』으로부터 근고의 『서유기』, 『전등상화』에서 많이 보는 것이며 조선의 고대소설에 있어서도 태반이나 이와 같다.” 49)
- ⑥ “현장(玄奘)의 서천취경(西天取經)을 전부 환상으로 서술한 『서유기』와 같이 적성의 서천취약(西天取藥)도 전연 상상의 세계를 가구(假構)하였으며...” 50)
- ⑦ “선조 이후에는 『어록해』(語錄解)가 많이 생기고 한어(漢語) 학습이 심히 유행하고 사대기서(四大奇書)가 번역되었으며, 더구나 문인으로서 『서상기』(西廂記)를 보지 아니 한 자 없었고...” 51)
- ⑧ “(『숙향전』의) 주인공 이선(李仙)이 회회국(井星), 호밀국, 유구국(箕星), 교지국(奎星) 등을 지나 봉래산 하에 가서 약을 가져온 설화는 『서유기』에 당(唐) 삼장(三藏)이 사자국(獅子國), 규룡국(虯龍國), 여인국을 지나 서천(西天)에 가서 불경을 가져온 이야기와 (중략) 같은 몽환적, 비현실적 부분을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나머지가 없을 것이며...” 52)
- ⑨ “『금령전』(金鈴傳: 『금방울전』): 동해 용왕의 아들 해룡과 용녀 금방울과의 결혼 로맨스이니 원곡(元曲)의 『장생자해』(張生煮海)와 『서유기』 같은 데서 환탈(幻脫)한 듯한 설화가 많다.” 53)
- ⑩ “『수당연의』(隋唐演義) (중략) 그 속에서 특히 수양제(隋煬帝)의 음탕한 생활장면만을 채출(採出)한 것을 『염사』(艷史)라고 하며 당 태종의 전기(傳記)만을 적집(摘輯)한 것을 『당태종전』이라고 한다. 이

48) 김태준, 앞의 책, P.118.

49) 김태준, 앞의 책, P.121.

50) 김태준, 앞의 책, P.141.

51) 김태준, 앞의 책, P.183.

52) 김태준, 앞의 책, P.P.204~205.

53) 김태준, 앞의 책, P.214.

『당태종전』은 근년 돈황에서 발굴된 『당태종동명기』와 가까운 책이다.” 54)

위의 인용문과 같이 김태준은 『서유기』의 내용, 형성과정, 번역, 영향관계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후대 연구자에게 많은 시사와 연구 동기를 제시해 주었다. 특히 김태준은 『서유기』가 한국 고전소설에 준 영향관계를 연구하는 비교문학의 관점을 많이 제시해 주어 후대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돼서 그의 관점을 발전시켜 비교문학의 연구방향을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김태준의 연구는 『서유기』의 국문학적 연구의 효시를 말할 수 있다. 김태준의 연구를 바탕으로 광복이후 『서유기』의 비교문학적 연구가 계속되었다.

일제시기의 양견식과 김태준의 연구는 전문적인 논문은 아니지만 후대 연구자에게 연구 자료 및 동기를 부여해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2) 광복 이후~80년대의 연구

광복 이후부터 정치, 문화, 학술 환경의 분위기와 맞물려 80년대까지 『서유기』에 대한 연구 논문의 양은 많아지고, 특히 1980년에 들어와서 국내 최초의 『서유기』의 비교문학 박사논문과 중문학의 석사논문이 나오게 된다. 민관동의 『중국고전소설 및 희곡 연구자료 총집』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서유기』에 관한 논문자료<sup>55)</sup>중에서 어학적인 측면의 연구와 중국(대만포함)에서 연구된 논문을 제외하면 총 7편이다. 이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4) 김태준, 앞의 책, P.99.

55) 민관동, 『中國古典小說 및 戲曲 研究資料 總集』, 학고방, 2011년, P.P.182~185 참조.(이 연구자료 총집은 2010년도까지 연구물이 해당된다.)

연도	저자	논문명	발행유형
1956	李在秀	「韓國 小說 發達 段階에 있어서 中國小說의 影響」	학술지
1972	정규복	「『서유기』와 한국고소설」	학술지
1977	정규복	「『서유기』와 왕랑반혼전」	학술지
1980	이상익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박사
1980	윤태순	「『서유기』 대노천궁」	석사
1981	윤태순	「오승은 소고-『서유기』를 중심으로」	학술지
1989	김영수	「『西遊記』의 宗教思想研究」	석사

<표4> 광복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발표된 논문

이 시기의 『서유기』를 포함한 중국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연구경향이 나타난다. 하나는 국문학계에서 진행하는 중국 고전소설과 한국 고소설 간에 영향관계를 탐구하는 비교문학적인 연구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정규복, 이상익 등이 있다. 또 하나는 1980년대에 시작한 국내의 중국문학 전공자들과 대만에서 유학한 학자들이 주도하는 『서유기』에 대한 소설사적인 연구이다. 이 시기의 대표 학자는 윤태순, 서정희 등이 있다.

이처럼 『서유기』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비교문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한·중 소설의 비교연구는 1950년대에 들어와서 국문학 연구에 비교문학 방법론이 도입<sup>56)</sup>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주로 『삼국지』, 『수호전』, 『금병매』 등에 한정되어 진행되었다. 『서유기』와의 연관성을 비교연구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김태준의 『조선소설사』가 처음이었다. 이러한 『서유기』에 대한 관심사는 후대의 연구자에게 연구의 동기로 작용하여 1956년 이재수<sup>57)</sup>는 처음으로 『서유기』와 한국 고전소설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부터 『서유기』의 비교문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후 이러한 연구는 정규복에 의해 발전되었고<sup>58)</sup>, 이를 계승하여 이상익에 의해서 비로소 본격적

56) 이상익,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박사논문, 1980. P.15. (三英社 출판한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의 제 일 부에 등재한다.)

57) 李在秀, 「韓國 小說 發達 段階에 있어서 中國小說의 影響」, 慶北大學校論文集/1, 1956년.

58) 정규복, 「『서유기』와 한국고소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亞細亞研究/15(4), Vol.15 No.4, 1972년; 「『서유기』와 왕랑반혼전」, 안암어문학회 어문논집/19.20(1), 1977년.

인 비교문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sup>59)</sup> 정규복은 「『서유기』와 한국고소설」에서 『서유기』의 한국전래 및 수용, 한국고소설과 비교연구 위주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처음 시도하였다. 그 후 1980년에 이상익은 「한국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서유기』의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박사논문에서 『서유기』 연구를 총체적으로 집대성하였다.

그 다음에는 『서유기』의 연구가 좀 더 본격적이고 체계화된 석사논문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윤태순의 석사논문 「『서유기』 대노천궁」<sup>60)</sup>과 김영수의 「西遊記의 宗教思想研究」<sup>61)</sup>이다. 윤태순은 주로 『서유기』의 대노천궁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고, 김영수는 『서유기』중에 나타나는 종교사상을 연구했다.

이상은 광복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서유기』 연구의 비교문학과 중문학계의 연구경향이다. 『서유기』의 연구는 광복이후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서유기』와 한국 고소설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비교문학 연구가 먼저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편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윤태순, 김영수에 의해서 중문학의 『서유기』의 주제, 사건,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도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서유기』 연구의 '씨를 뿌리고 연구의 토양을 개척하였다<sup>62)</sup>'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 후 90년대에는 이 시기의 연구의 토양 아래 『서유기』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형성과정 연구, 작자 연구, 판본 연구 등 기존 연구 주제도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됨과 동시에 『서유기』에 대한 소설적인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3) 90년대 연구

59) 이상익,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박사논문, 1980년.

60) 윤태순, 「『서유기』 대노천궁」,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0년.

61) 김영수, 「西遊記의 宗教思想研究」, 延世대학교 석사논문, 1989년.

62) 민관동, 앞의 책, P.19.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소설 연구에 아주 큰 영향을 준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한국과 중국의 수교를 맺은 것이다. 수교를 맺기 전에는 중국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만으로 유학을 갔으나 수교 후 유학의 지향도가 달라졌다. 중공으로만 여겼던 나라가 중국이라는 대륙으로 바뀌어 중국문학 및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6년부터 중국 대륙에 유학한 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서유기』를 포함한 중국소설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학풍이 형성되었다. 90년대에 발표된 석사논문 3편, 박사논문 1편, 학술지논문 12편 총 16편이 있다. 구체적인 논문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	저자	논문명	발행유형
1992	나선희	「西遊記研究--싸움의 구조를 중심으로」	석사
1992	이상익	「충격과 조화:한중소설의 비교연구(기4)-『서유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학술지
1994	윤태순	「『서유기』 신마고」	학술지
1995	윤태순	「『서유기』 研究」	박사
1995	磯部 彰著 나선희역	「『서유기』 研究史」	학술지
1996	안지영	「『서유기』의 兒童文學的 性格 研究」	석사
1996	최한용	「『서유기』의 神佛과 妖魔關係 研究」	석사
1996	서정희	「『서유기』 81년의 의의 연구」	학술지
1996	나선희	「인도서사시 『라마야나』와 중국소설 『서유기』의 관련성에 대해」	학술지
1996	鄭元祉	「『서유기』의 構造와 論理」	학술지
1997	나선희	「고대 중국인의 공간에 대한 이해- 『서유기』에 나타난 이 세계와 저 세계 연구의 토대로」	학술지
1997	丁奎福	「王郎返魂傳 與 古本西遊記」	학술지
1998	정규복	「왕랑반혼전과 『고본서유기』」	학술지
1998	徐貞姬	「『서유기』의 주제 연구」	학술지
1999	정원지	「명대 희곡 『서유기』의 제의적 구조」	학술지
1999	나선희	「『서유기』 출현의 사회문화적 배경 : 명대 인쇄출판의 성황과 문학담당층의 증가를 중심으로」	학술지

<표5> 90년대에 발표된 논문

표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듯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유기』에 대한

연구는 지난 시기(광복이후~80년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특히 1992년 한중 양국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은 후에 학문적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리고 연구 경향도 비교문학, 주제 등의 연구 외에 『서유기』의 구조, 배경 연구 등 새로운 연구 방향도 나왔다. 90년대의 국문학의 연구는 이상익, 정규복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반면 중국문학의 연구에서는 나선희, 윤태순, 서정희 등이 등장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유기』는 비교문학 연구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환경은 90년대에도 계속 주목을 받는 가운데 1996년에 나선희는 『서유기』와 인도문학 작품 『나마야나』와 비교함으로써 그 이전 한국고전소설에서 머물지 않고 비교영역을 확대시켰다.

『서유기』의 중국학 연구계에서도 새로운 연구 방향이 나타났다. 단지 주제 연구와 사상 연구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1992년에 나선희<sup>63)</sup>는 『서유기』의 구조 특히 싸움의 구조가 주인공간의 성격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요괴들과 대립의 양상, 원인, 형식 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는 최한용<sup>64)</sup>은 『서유기』의 외부 싸움을 주목하고 주로 조력자 역할을 해당하는 신불과 방해자 역할을 해당하는 요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를 통해서 작가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鄭元祉<sup>65)</sup>는 『서유기』의 작품 중 특정한 내용인 제8회부터 제12회의 내용을 위주로 『서유기』의 취경단의 적강(謫降)구조를 분석하고 적강의 원인인 속죄(贖罪)설의 방향으로 더 발전시켰다.

중국문학 연구의 또 하나 경향은 바로 윤태순의 『서유기』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들 수 있다. 윤태순<sup>66)</sup>은 『서유기』의 저자문제, 창작배경, 소설까지의 형성과정, 서사구조, 주제와 사상 등 여러 방면의 『서유기』 연구를 진

63) 나선희, 「『西遊記』研究--싸움의 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2년.

64) 최한용, 「『西遊記』의 神佛과 妖魔關係 研究」, 延世大學校 석사논문, 1996년.

65) 鄭元祉, 「『西遊記』의 構造와 論理」, 중국인문학회 中國人文科學/15, 1996년.

66) 윤태순, 「『西遊記』 研究」, 成均館大學校 박사논문, 1995년.

행하고 독자에게 『서유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같은 해에 일본학자 磯部 彰가 쓰고 나선희<sup>67)</sup>가 번역하는 「『西遊記』 研究史」는 『서유기』의 중국 백년간의 연구 성과와 일본의 『서유기』 연구성과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유기』의 연구사를 개관하였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1996년에 이르러서 중국고전문학 연구는 새로운 시기에 들어왔다. 중국 대륙에 처음으로 유학해 온 학자들이 귀국한 후에 새로운 자료나 새로운 연구 방법 등을 토대로 『서유기』의 연구는 양적과 질적으로 급속도로 상승하는 시기가 만들어 졌다. 이 시기에 새로 나온 연구 경향은 『서유기』의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안지영<sup>68)</sup>의 「『西遊記』의 兒童文學的 性格 研究」, 나선희<sup>69)</sup>의 공간적인 연구 「고대 중국인의 공간에 대한 이해-『서유기』에 나타난 이 세계와 저 세계 연구의 토대로」 등이 있다.

이렇듯 90년대는 『서유기』 연구에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한다.<sup>70)</sup> 특히 1996년 후에 논문의 양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양적인 확대가 눈에 띈다. 주로 중국(대만 포함)에서 진행된 『서유기』의 연구 성과를 한국에 소개하고 나중에 후학들에게 자료에 대한 정보 및 기초를 잘 쌓아준 큰 의미가 가진다.

#### 4) 2000년 이후 연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정보화로 인해 이전보다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림으로써 매체의 연관성이 연구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매체와 『서유기』를 활용한 다양한 방

67) 磯部彰著, 나선희역, 「『西遊記』 研究史」,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東亞文化/33, 1995년.

68) 안지영, 「『西遊記』의 兒童文學的 性格 研究」, 高麗大學校 석사논문, 1996년.

69) 나선희, 「고대 중국인의 공간에 대한 이해」, 영남중국어문학회, 중국어문학/30(1), 1997년.

70) 민관동, 『중국고전소설 및 희곡 연구자료 총집』, 學古房, 2011년, P.19.

안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70년대부터 출발한 『서유기』 연구 성과는 또 다른 연구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의 수량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다. 구체적인 발표된 논문의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지논문	총계
2000	-	-	1	1
2001	1	1	2	4
2002	-	-	1	1
2003	-	-	2	2
2004	-	-	-	0
2005	1	1	3	5
2006	-	1	5	6
2007	-	1	2	3
2008	-	3	2	5
2009	-	-	4	4
2010	1	1	5	7
2011	-	-	6	6
2012	-	-	5	5
2013	1	2	6	9
2014	-	-	2	2
2015	-	3	2	5
2016	-	2	6	8
통계	4	15	54	73

<표6> 2000년 후에 발표된 논문의 수량

위의 표를 보면 2000년후에 나온 학위논문은 총 19편으로, 2016년 8월까지 발표된 학위논문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학술지 논문은 54편,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2000년 후에는 급속도로 연구의 폭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국문학의 비교문학적인 접근과 중국문학의 소설사적인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발표하는 연구물의 수량이 늘어났다. 동시에 문화콘텐츠와 같은 현대적인 새로운 연구과제도 2008년부터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2000년 후의 연구 방향은 역시 광복이전 『서유기』에 대한 비교문학적 접근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연구영역의 확대를 가져왔다.

첫째, 1970년대 국문학계부터 시작한 연구는 중문학계로 확대하여 비교문학

연구가 지속되었다. 2000년 후에 석사논문 1편, 학술지논문 4편 총 5편을 발표되었다. 비교대상은 여전히 『洪吉童傳』, 『田禹治傳』, 『玉樓夢』, 『九雲夢』, 『唐太宗傳』 등에 국한되었지만 『서유기』와 비교하는 연구의 깊이는 전문적으로 심화되었고 발전하였다. 반면 중문학계의 비교연구는 『서유기』와 인도의 작품, 티베트의 문학작품을 비교를 통해서 중문학의 비교연구도 시작했다.<sup>71)</sup> 그 후 최근 몇 년간은 비교문학 연구는 주춤한 상태이다.

둘째, 1980년대에 시작한 주제사상 연구이다. 석사논문 1편, 학술지논문 6편의 성과가 있다. 『서유기』의 주제 연구는 원래부터 학자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어려운 연구 주제이다. 『서유기』는 700여년의 긴 역사를 걸쳐 여러 문인들의 편집과 창작을 통해서 완성된 거대한 장편소설이라서 일정한 주제를 논하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다. 현재 『서유기』는 유, 도, 불 三敎混合의 영향을 받고 불교 위주로 하는 주제설이 가장 보편적이다. 2000년 후에도 주제 연구는 선학들의 연구 기초 위에 더 많은 主題說을 보강하면서 『서유기』 작품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서정희, 최한용 등은 주로 『서유기』 중에 종교적인 주제를 연구하고 김준수는 종교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작품 중에 사회에 대한 풍자성도 분석하였다.

셋째,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한 『서유기』의 인물형상 연구는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대상인물은 『서유기』 중의 주인공, 신불, 요괴까지 거의 다 포함한다. 인물형상 연구는 서정희<sup>72)</sup>, 최한용<sup>73)</sup>, 이지예(李潔)<sup>74)</sup>, 박춘

71) 나선희, 「라마야나, 계사르전, 서유기: 실�크로드 위 서사작품의 비교」, 韓國中國語文學會, 中國文學/72, 2012년.

72) 서정희, 「『서유기』의 唐三藏 연구1」, 중어중문학 제38집, 2006년 6월; 「『서유기』의 唐三藏 연구2(당 삼장의 반야심경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과 그 의의를 中心으로)」, 중국학연구 제38집, 2006년 12월; 「『서유기』의 손오공 연구(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 의한 眞, 假손오공의 정신세계분석)」, 중어중문 제42집, 2008년; 「『서유기』의 妖怪 연구(『西遊記』 요괴의 조재론적 본질과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49집, 2009년.

73) 최한용, 「『서유기』의 神佛과 妖怪關係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6년; 「『西遊記』에 나타난 神佛들에 대한 諷刺」,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학논집 제58집, 2009년; 「『西遊記』의 神佛形象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박사논문, 2010년.

74) 이지예, 「『서유기』 요괴연구」, 부산대학 석사논문, 2006년.

영<sup>75)</sup>등의 연구에 의한 상당한 양적인 성과와 질적인 성과가 쌓였다.

반면 2004년에 『서유기』(10권)<sup>76)</sup>가 완역되면서 선학들의 많은 연구 기초와 더불어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텍스트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 시도가 활발해졌다. 이 후 많은 연구 논문은 『서유기』의 형성과정과 텍스트 활용방안면의 문화콘텐츠의 연구 방향을 들 수 있다.

『서유기』의 형성과정과 판본 연구는 2004년부터 홍성초, 민관동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sup>77)</sup>

2008년부터 『서유기』의 활용방안 면에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연구자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2008년부터 박사논문 1편, 석사논문 5편, 학술지 논문 2편을 발표함에 따라 2000년 후에 『서유기』 연구의 추세는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연구물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는 바로 『서유기』가 동양 판타지의 시조이고 동양적인 상상력의 원천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2000년에 들어와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작되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으로 확대 생산되었다. 앞으로 이 방향의 연구는 꾸준할 것으로 짐작한다. 2016년에도 원청사 논문<sup>78)</sup>의 발표함에 따라 『서유기』의 문화콘텐츠

75) 박춘영, 「『西遊記』의 成書過程과 主要 人物形象 연구」, 崇實大 박사논문, 2006년.

76) 吳承恩 著, 『서유기』(10권), 서울대학교 『서유기』 번역연구회 번역, 솔 출판사, 2004년 2월.

77) 『서유기』의 형성과정 연구는 제Ⅱ장에서 『서유기』의 유입과정과 판본 문제를 분석했을 때 거의 대부분 언급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생략한다. 『서유기』의 형성과정과 연관된 논문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	논문명	저자	발표유형
1999년	「명대 희곡 『서유기』의 제의적 구조」	정원지	학술지
2003년	「『西遊記』와 降魔變 및 불경의 비교연구」	김태관	학술지
2004년	「『서유기』의 형성 과정 연구」	홍성초	석사
2005년	「『서유기』의 형성 과정 연구과 주요 인물형상 연구」	박춘영	박사
2006년	「『西遊記』의 國內 流入과 板本 研究」	민관동	학술지
2007년	「『西遊記』의 板本 및 國內流入에 대한 研究」	홍수진	석사
2013년	「조선시대 『서유기』의 전파와 영향 연구」	홍성초	학술지
2013년	「『西遊記』의 수용양상과 문학적 보편성」	김지현	석사

<표7> 『서유기』 형성과정과 판본 관련 연구논문

78) 원청사, 「현대 애니메이션의 중국 전통문화요소 활용과 창조성 : 애니메이션 <몽키킹:영웅의 귀환>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년.

츠 연구의 지속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연구로, 나선희<sup>79)</sup>는 『서유기』 중에 나타나는 다층 공간을 연구하였고, 서정희<sup>80)</sup>는 『서유기』를 세분화하고 한 사건을 위주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시기별로 연구의 현황 및 연구 주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서유기』의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부터 한국고소설과 비교연구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서유기』 소설 자체에 대한 주제사상연구, 사건연구, 인물 형상연구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그 후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한, 중 수교에 따라 중국문학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서유기』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지면서 이전의 연구 주제 기초위에 구조 연구, 공간 배경 연구 등 새로운 연구 방향이 제시되었다. 2000년에 들어와서 특히 정보화 세계의 편리성으로 국내외의 정보가 용이했기 때문에 『서유기』의 작품 및 연구물을 쉽게 접근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서유기』 연구에 대한 선학들의 기초 연구가 많이 쌓이고 소설전공자들을 번역한 완역본이 제공되면서 『서유기』 연구가 한층 높아갔다. 2000년 후에 『서유기』 연구는 기존의 국문학의 비교연구에서 좀 더 나아가 중문학의 소설사적인 연구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연구의 방향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2. 주제별 연구현황

앞에서 『서유기』에 대한 연구 흐름은 비교문학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매

---

79) 나선희, 「『西遊記』研究-호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1년.

80) 서정희, 「『西遊記』의 緊箍兒 연구」, 중국학연구회 中國學研究 제46집, 2008년.

체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연구방향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연구의 동일한 주제적 방향을 묶어서 연구의 진척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비교문학 연구

『서유기』에 관한 연구는 우선 비교문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연구된 『서유기』 비교문학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연도	논문명	저자	발표유형
1956년	「한국 소설 발달 단계에 있어서 중국소설의 영향」	이재수	학술지
1972년	「『서유기』와 한국고소설」	정규복	학술지
1977년	「『서유기』와 『왕량반혼전』」	정규복	학술지
1980년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이상익	박사논문
1992년	「충격과 조화 : 한중소설의 비교연구 - 『서유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상익	학술지
1996년	「인도서사시 『라마야나』와 중국소설 『서유기』 관련성에 대해」	나선희	학술지
1997년	「『왕량반혼전』과 『고본서유기』」	정규복	학술지
1998년	「『왕량반혼전』과 『고본서유기』」	정규복	학술지
2001년	「『서유기』가 한국 고소설에 끼친 영향」	김송죽	석사논문
2005년	「『삼한습유』와 『서유기』의 친연성과 변별성」	서신혜	학술지
2007년	「고전문학과 공간적 상상력 : 『삼한습유』의 공간과 주제-『서유기』와의 대비를 겸하여-」	이승수	학술지
2012년	「『홍길동전』에 나타난 『서유기』 서사 양식 고찰」	권혁찬	학술지
2012년	「『라마야나』, 『게사르전』, 『서유기』 ; 실�크로드 위 서사작품의 비교」	나선희	학술지

<표8> 『서유기』의 비교문학 연구논문

위의 표는 『서유기』의 비교문학적 연구 논문 13편을 발표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처음에 1956년에 학술지논문에서 출발하여 1980년에 박사논문이 나왔다. 그 후에도 거의 학술지 논문이 대부분이고 2001년에 석사논문 한 편

이 발표되었다. 『서유기』의 비교문학적인 연구는 발표순서대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동일한 연구방향의 흐름과 연구의 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처음에는 『서유기』와 한국고소설의 영향관계를 간단하게 제시하는 연구로, 1956년에 李在秀의 『韓國小說發達段階에 있어서 中國小說의 影響』이 있다. 이재수는 논문 안에서 '第三章 傳奇小說 育成期(壬亂後)'에서 '『서유기』와 고대소설'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유기』가 한국고전소설의 육성(育成) 시기에 『서유기』와 고전소설 『홍길동전』중에 변신술, 『玉樓夢』중의 變身術과 分身術, 『唐太宗傳』의 주인공과 三藏, 『田治禹傳』에 釜에 들어가는 줄거리, 『叔香傳』의 道佛合一 사상 등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제시하면서 『서유기』의 비교문학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는 김태준의 『朝鮮小說史』<sup>81)</sup>에서 『서유기』의 관한 기존견해를 수용하면서 좀더 풍부한 관점으로 발전하였다.

그 다음에는 『서유기』와 한국고소설의 본격적인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는데 1972년에 丁圭福 교수의 『西遊記와 韓國古小說』<sup>82)</sup>이 대표적이다. 『西遊記』의 韓國傳來에 대한 내용과 함께 『雍固執傳』, 『洪吉童傳』, 『田禹治傳』, 『玉樓夢』, 『九雲夢』, 『唐太宗傳』 등의 作品에서 『서유기』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2장에서 『서유기』에 대한 소개로, 내용, 판본, 작가논란, 손오공의 내원(인도 외래설, 중국 본토설), 이본(異本)문제, 한국의 수용양상, 한국고전소설과의 연관관계를 총체적으로 서술하였다.

丁圭福 교수는 고전소설과 『서유기』와의 영향관계는 이재수 교수의 견해보다 좀 더 확장시켰다. 즉, 변신술과 분신술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雍固執傳』중의 爭主說話, 『洪吉童傳』중의 縮地法, 騰空說話, 妖怪治退설화, 『田禹治傳』의 油鍋설화, 變身爭主설화, 『玉樓夢』의 呪術, 지명, 變身相

81)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년.

82) 정규복, 『『서유기』와 한국고소설』, 아세아연구 제15집(4), 1972년, P.43.

爭설화, 『九雲夢』의 환생설화, 三教混合사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대목을 구체적으로 인용해 줌으로써, 영향관계의 설득력을 높였다. 반면 『唐太宗傳』은 거의 『서유기』의 제 10, 11, 12회의 翻案이지만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후 1977년에 丁圭福 교수는 『서유기』와 영향관계가 있는 또 다른 고전 소설인 『왕랑반혼전(王郎返魂傳)』과의 비교연구를 발표하였다.<sup>83)</sup> 불교소설인 『왕랑반혼전』의 來源은 단지 『太平廣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유기』의 당태종 이야기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후 고려대본 『왕랑반혼전』의 발견에 따라 이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어로 간단하게 재정리하였다.<sup>84)</sup> 그 후에도 두 작품 간의 분석<sup>85)</sup>이 계속되었는데, 이때 『서유기』 텍스트가 오승은의 百回本 『서유기』에서 『고본서유기』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그 후 비교연구가 집대성되었다. 이상익은 이가원과 정규복의 논의를 좀더 심화, 발전시켰다. 이상익은 정규복이 연구한 비교대상들을 재대상으로 삼아 심도 깊은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작품으로 『구운몽』, 『옥루몽』, 『삼한습유』, 『전우치전』, 『홍길동전』, 『숙향전』 등이다. 작품별로 구체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운몽』과 『서유기』의 비교 연구이다.

『구운몽』과 『서유기』의 영향관계를 제시한 이가원과 정규복의 연구에 한층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발전하였다. 즉, 이상익<sup>86)</sup>은 우선 『구운몽』의 저자인 김만중과 『서유기』간에 관계를 문헌 기록상에서 살펴보았다. 김만중은 外邦소설에도 박학다식할 뿐만 아니라 패관소설도 즐겼기 때문에 『서유기』 작품도 애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상익은 『구운몽』

83) 정규복, 「『서유기』와 왕랑반혼전」, 어문논집/19,20(1), 1977년.

84) 丁奎福, 「『王郎返魂傳』與『古本西游記』」, 한중인문학연구/(2), 1997년.

85) 정규복, 「『왕랑반혼전』과 『고본서유기』」, 比較文學/別卷, 1998년.

86) 이상익,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80년.

의 주제가 '삼교혼합 불교주류사상'이라는 정규복<sup>87)</sup>의 앞선 연구에 동의하면서 『구운몽』의 주제가 '인생의 부귀공명이 일장춘몽'이라는 불교적인 주제를 『서유기』의 주제인 '고난을 무릅쓰고 서천에서 경을 구해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성 면에서 『구운몽』의 현실성과 비현실성이 엇갈리는 二重構造를 지니고 있는 면을 비롯하여 性眞과 8선녀의 幻生은 『서유기』에 보이는 당태종의 入冥府후의 환생과 李翠蓮의 환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작품의 곳곳에서 散見되는 騰空術도 의심할 여지없이 『서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조선시대에 애독되었던 『삼국지연의』와 『수호전』 등에 볼 수 없는 騰空術은 『서유기』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등장한다. 그리고는 용왕이 白衣노인이 되어 六觀大師 앞에 參經하는 장면도 『서유기』에서 涇河 용왕이 백의수사로 변하여 원수성을 찾아가는 장면이나 요괴들이 관음보살로부터 불경을 듣는 장면의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에 楊少遊가 재상 정사도의 사위가 된 擇壻 이야기도 『서유기』의 진광위가 재상 인개산의 사위가 된 이야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다음 『옥루몽』과 『서유기』의 비교 연구이다.

『옥루몽』과 『서유기』의 영향관계는 이상익에 따르면 사상적 배경면에서 불교적인 요인 특히 여래불, 관음보살과 문수보살의 법력의 작용은 『서유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는 『옥루몽』의 인물명과 지명은 『서유기』와 동일한 점과 구성 면에서 변신, 분신, 念呪幻術은 『서유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또 하나는 강남홍이 芙蓉劍을 얻은 방법과 『서유기』의 손오공이 여의금고봉을 얻는 과정이 어느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다음 『三韓拾遺』와 『서유기』의 비교 연구이다.

『三韓拾遺』는 주인공 향낭이 환생할 때 천상대회에 참가하는 신선들, 공

87) 정규복, 『구운몽연구』, 고대출판부, 1974년, P.P.287~288 참조.

자 같은 명인들과 보살들이 등장하는 장면들은 유, 불, 도 3교의 혼합사상이 『서유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는 향낭의 재혼을 방해하는 마군과 천병간의 싸움 장면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불교 범살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은 『서유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sup>88)</sup> 하지만 유, 불, 도 3교 혼합사상을 고전소설의 전반적 배경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서유기』 영향관계로 논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음 『홍길동전』과 『서유기』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내용이다.

『홍길동전』의 구성 면에서 念呪幻術의 道術戰 장면은 『서유기』의 여러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분신법과 등공법은 『서유기』의 영향이라고 단언하였다. 그 밖에 『홍길동전』과 『서유기』가 관련이 있을 듯한 사건의 하나가 懷柔策을 써서 병조판서를 除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捕盜대장이 푸대 속에 갇히는 것<sup>89)</sup>이라 보았다. 사상 면에서 보면 두 작품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였는데 우선 홍길동이 공명을 이루고 萬世流芳을 하는 의식은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천상에 진출과 地府에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등에 나타난 저항의식, 개척정신과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홍길동전』에서 나타나는 도선의 분위기와 『서유기』의 도선적인 분위기 또한 연관이 있으며,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요괴 퇴치 사건은 『서유기』보다는 『전등신화』 중에 『申陽洞記』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하였다.<sup>90)</sup>

그 다음 『숙향전』과 『서유기』의 비교연구이다. 이전의 기존논의에서 정규복은 『서유기』와 『숙향전』의 영향관계를 부정한 반면 이상익은 영향관계를 ‘동백나무 이야기’, ‘법력은 주인공 도움을 준다는 점’, ‘선약의 환혼작용’, ‘주인공이 다 여인의 유혹을 받은 장면’ 등 네 가지 서사 층면에서 영향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88) 이상익,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삼영사, 1980년, P.193 참조.

89) 이상익, 위의 논문, P.167 참조.

90) 이상익, 위의 논문, P.169 참조.

다음 『전우치전』과 『서유기』의 비교문학적인 연구이다.

고전소설 중에 도술적인 요인이 강한 대표적인 작품인 『전우치전』은 주제면보다 구성적인 면에서 『서유기』와 비교하였다. 예를 들면 등공의 장면, 변신과 분신의 장면, 念呪幻術 장면, 기름 가마에 들어가는 장면과 전우치가 강림 도령앞에 도술을 못 쓰는 장면은 『서유기』에 손오공이 여래불과 관음보살 앞에 법력을 제한되는 장면과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전우치전』에서 반도연을 여는 장면과 반도를 따오는 이야기는 『서유기』의 손오공이 반도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장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상익은 『구운몽』, 『옥루몽』, 『삼한습유』, 『홍길동전』, 『속향전』, 『전우치전』 등의 작품은 『서유기』의 도술적인 요인 변신, 등공법 등을 기본으로 하여 연관성을 제시하였지만 이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서 무조건 『서유기』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유기』는 사상적인 배경이나 구성상의 기법 면에서 한국소설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sup>91)</sup>

이 후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상익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편폭을 확장하였다. 특히 김송죽(2001년)<sup>92)</sup>은 이상익의 논의를 대체로 수용하여 주인공 손오공을 중심서사 축으로 고소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밖에도 중문학의 비교연구는 나선희부터 시작되었다. 나선희는 인도서사시 『라마야나』와 중국소설 『서유기』의 관련성에 대해』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서유기』의 비교문학연구를 국문학의 범위에서 중국문학으로 확대시켰다. 주로 인도서사시 『라마야나』와 중국소설 『서유기』의 관련성을 중국역사상에 『라마야나』에 대한 수용을 제시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은 『라마야나』의 주요인물인 하루마와

91) 이상익, 앞의 논문, P.194 참조.

92) 김송죽, 『『西遊記』가 韓國 古小說에 끼친 影響』, 仁川大學校 석사논문, 2001년.

‘내용구조면에서 다 부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신통력을 공통으로 수용했다는 점’<sup>93)</sup>에서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2012년에 나선희는 ‘『라마야나』, 『게사르전』, 『서유기』: 실크로드 위 서사작품의 비교’ 중에 티벳의 신화서사시 게사르전을 새롭게 추가해서 실크로드 위에 세 국가 간의 신마서사작품의 비교를 통해서 모두 ‘신마들이 등장하는 신화적인 성격이 있는 점, 공간 사용의 자재(自在)성을 가진 점, 작품 안의 공간이 평범한 공간이 아니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합쳐진 공간이라는 점, 천상 존재들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세속화된 공간을 가진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서유기』 비교 대상을 확대시켜준 의미가 있다.

2000년 후에 비교문학 연구는 그 이전에 비해 오히려 주춤하였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연구로 서신혜<sup>94)</sup>는 『三韓拾遺』와 『서유기』의 친연성과 변별성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정규복과 이상익의 기존연구 토대 위에 작품 간의 문제의식의 면에서 三敎同源 사상의 영향 아래 삼교 중의 특정한 사상에 치우치기보다 보편적으로 적용, 인정(人情)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이 세 방면에 공통점을 부여하였다. 다만 차이점으로 주로 『三韓拾遺』와 『서유기』의 창작방식이 다르기에 이에 따라 구비 전승물과 개인 창작물에서 풍자와 비판의 방식, 인물형상, 창작의 시대적인 배경 등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이승수<sup>95)</sup>는 『삼한습유』의 서사 시공간과 주제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서유기』와의 대비를 고찰하였다. 『서유기』와의 공통점으로 시공간의 幻界와, 모든 존재는 불완전성, 불완전함에 대한 풍자와 희롱을 가진 독특한 예술성취 등 면에서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았다.

권혁찬<sup>96)</sup>은 「홍길동전」에 나타난 『서유기』 서사 양식의 공통점으로 요

93) 나선희, 「인도서사시 『라마야나』와 중국소설 『서유기』의 관련성에 대해」, 韓國中國語文學會 中國文學 제26집, 1996년, P.16 참조.

94) 서신혜, 「『三韓拾遺』와 『서유기』의 친연성과 변별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제28권 제2호, 2005년.

95) 이승수, 「고전문학과 공간적 상상력 : 『삼한습유(三韓拾遺)』의 공간과 주제-『서유기』와의 대비를 곁하여」, 한국고전문학회 古典文學研究 제31집, 2007년.

괴 퇴치담, 인질 구출, 도술적인 요소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서유기』와 한국 고전소설과의 비교문학적인 면에서 살펴본 연구현황이다. 즉, 비교문학적인 연구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주로 정규복, 이상식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연구 성과를 얻고 후대에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비교 연구대상은 범위를 확대시켜 한국 고소설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인도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이 확대되었던 시기이다. 2000년에 들어와서 『서유기』의 비교문학적인 연구는 그 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는 편은 아니었다. 비교대상 작품이 증가되지 않았지만 선학들의 연구 방향을 답습하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비교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몇 년간에 『서유기』의 비교문학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2016년부터 중문학의 작품 간에 인물형상 비교연구<sup>97)</sup>는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서유기』의 연구는 『서유기』가 워낙 방대한 작품이라서 한국에서 아직은 출발단계로 보기 때문에<sup>98)</sup> 앞으로 확장되는 연구의 편폭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서유기』와 비교한 작품을 살펴보면 작품수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 이재수는 『서유기』와 한국 고전소설인 『홍길동전』, 『옥루몽』, 『당태종전』, 『전치우전』, 『숙향전』의 연관성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교했다. 다음 정규복은 이재수의 연구대상의 기초 위에 『옹고집전』, 『구운몽』을 추가하고 다방면으로 서사구조를 비교하였다. 그 후에 정규복은 『서유기』와 고전소설 『왕랑반혼전』을 새롭게 추가해서 연관성을

96) 권赫贊, 「『홍길동전』에 나타난 『서유기』 서사 양식 고찰」, 한국중국소설학회 中國小說論叢 제36집 2012년.

97) 장열, 「한·중 소설에 나타난 용왕(龍王) 이미지 비교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논문, 2016년.  
유수민, 「明代 神魔小說 『西遊記』와 『封神演義』의 二郎神 형상 小考」,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4., 2016년.

98) 이 관점은 학계의 보편적인 인식이고 많은 학자가 있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최한용, 「『서유기』의 신불형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년, P.10 참조.  
홍성초, 「『서유기』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중문학과 석사논문, 20004년, P.5 참조.

비교했다. 그 다음 이상익은 정규복과 선학들의 연구 대상 기초 위에 『삼한습유』를 새롭게 추가해서 『서유기』와 연관성을 깊이 있게 다양한 비교를 했다. 이상익의 연구 후에 『서유기』와 고전소설과의 비교 연구는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중문학의 비교연구는 나선희를 위주로 『서유기』와 인도작품 『라마야나』의 연관성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2000년 후에 『서유기』와 비교대상의 작품이 증가하지 않지만 심도 있게 비교연구가 진행되었다. 서신혜와 이승수는 주로 『삼한습유』와 『서유기』 간에 내적인 연관성을 깊게 연구하였고, 권혁찬은 『서유기』와 『홍길동전』의 서사 양상을 자세하게 비교 연구했다. 『서유기』의 비교연구는 작품개요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출발하였으나 후에 비교를 하면서 후대로 갈수록 연구의 깊이는 심층적인 분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연구추세는 비교대상 작품을 점차 확대시키는 역할도 포함되었다.

## 2) 주제 및 사상연구

앞에 언급하듯이 『서유기』의 주제 및 사상 연구는 우선 비교연구의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제시되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서정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에 앞서 국내에 『서유기』 주제에 대한 연구는 이상익부터 출발하였다. 그는 『서유기』의 주제로 장생불로와 불교사상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제연구라고 보기 힘들다. 그 후 서정희<sup>99)</sup>는 주로 81년의 의미 연구를 통해 『서유기』의 주제는 오행의 상생상극설과 내단설(內丹說)이라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단순히 불교적인 주제와는 달리 삼교 융합 사상에 주목하여 주제를 심

99) 서정희, 「『서유기』 81년의 의의 연구」, 중국어문논집 제11집, 1996년; 「『서유기』의 주제 연구-오행의 상생상극설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15집, 1998년; 「『서유기』의 주제 연구 - 내단설의 수행 이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제33집, 2003년; 「심학과 『서유기』의 주제 연구」, 중국어문학 제62집, 2013년.

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주제와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연도	논문명	저자	발표유형
1989년	「『서유기』의 종교 사상 연구」	김영수	석사논문
1995년	「『서유기』 연구」	윤태순	박사논문
1996년	「『서유기』 81년의 의의 연구」	서정희	학술지
1996년	「『서유기』의 아동 문학적 성격 연구」	안지영	석사논문
1998년	「『서유기』의 주제 연구-오행의 상생상극설을 중심으로」	서정희	학술지
2003년	「『서유기』의 주제 연구 - 내단설의 수행 이론을 중심으로」	서정희	학술지
2009년	「『서유기』에 나타난 종교 요소」	崔漢鎔	학술지
2013년	「심학과 『서유기』의 주제 연구」	서정희	학술지
2013년	「『서유기』에 형상화된 여성의 정절 문제」	최귀묵	학술지
2014년	「『서유기』 삽시(插詩)의 도교적 특징과 문학적 기능에 대한 연구」	송정화	학술지

<표9> 『서유기』의 주제 및 사상 관련 연구논문

위의 표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주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인 학자는 서정희이다. 먼저 서정희는 「『서유기』의 81년의 의의」에서 당삼장이 서천으로 향하는 도중에 고난을 당할 때 표출된 심리상태를 주목하고 81년의 의의를 두 방면으로 고찰하였다. 삼장의 내면적인 심리 면에서 볼 때 ‘고난을 통해서 육신(肉身)만 있는 평범한 승려인 삼장이 불교의 空를 깨닫고 득도하기 위한 修心の 과정’ 이고 외면적인 利他 면에서 보면 ‘81년을 체험하면서 불교 경전을 구해와서 衆生을 苦海에서 구제할 수 있다’ 라는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그 후 서정희는 『서유기』 주제 연구의 다각도적인 시도를 위하여 『서유기』의 주제연구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즉, 위에 『서유기』의 불교적인 주제인 空사상을 기반으로 삼장 일행에 담긴 도교적인 오행의 상생상극설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른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오행사상은 소설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삼장 일행은 각자의 오행에 속하는 것

을 의미를 부여하자면 삼장이 水이고 손오공이 金과 火이고 저팔계가 木이고 사오정이 土에 해당한다. 오행의 상생 상극원리에 따르면 삼장 일행을 대립과 통일의 관계 속에 마지막에 화합으로 나아가 일체가 되어 81년을 극복해서 득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서유기』 중에 산입된 詩 중에 내포된 도교의 수행법은 약석을 복용하는 금단설(金丹說)임을 제시하면서 『서유기』의 주제를 다각도로 확대시켰다. 그 후 『서유기』의 탄생시기 명 중후반의 사상적인 배경인 심학의 시각을 적용하여 양명학의 ‘개체의 가치 긍정 및 주체성의 자각을 고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당삼장 일행이 자신 안의 욕망을 극복하고 부처가 되는 심성수련’을 통해서 ‘욕망의 극복과 천리의 실현이라는 수행 과정이 『서유기』를 관통하는 주제’<sup>100)</sup>라고 보았다. 이처럼 서정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서유기』의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서유기』의 작품성과 그의 가치를 한층 돋보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수는 『西遊記』의 宗教思想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그는 주로 서유기에 나타난 삼교의 영향을 위주로 불교의 육도윤회(六道輪回)사상이 숙명론적인 사유 및 관음신앙, 도교적인 장생불사의 수련과 成仙의 욕망과 五聖의 상생상극 관계, 유교에서 중시하는 인간을 교화하는 기능을 통해서 서유기의 주제가 유, 불, 도 3교의 세계와 사상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다고 보았다.<sup>101)</sup>

윤태순은 우선 주인공 손오공과 저팔계의 대화를 통해 풍자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즉, 불교의 대승원리로부터 삼장일행은 황제의 명을 받아 취경의 목적은 바로 대승 경전을 衆生에게 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행은 바로 小我의 경지에서 大我를 실현하기 위한 구도자의 정신세계의 성숙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sup>102)</sup>

100) 서정희, 「심학과 『서유기』의 주제 연구」, 중국어문학 제62집, 2013년, P.22 참조.

101) 김영수, 「『西遊記』의 宗教思想研究」, 延世大學校 석사논문, 1989년, P.P.71~73 참조.

안지영<sup>103)</sup>은 다른 시각으로 『서유기』의 주제를 새롭게 접근하였다. 아동 문학의 시각으로 선과 악이 대립하면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는 권선징악을 강조하여 아동의 성장과정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손오공의 정신적 성숙과정에서 동질감을 갖는다고 보았다.

최한용<sup>104)</sup>은 『서유기』에 나타난 삼교 요소인 불교의 인과응보에 의한 윤회사상, 도교적인 장생불사의 신선사상, 유교적인 충효사상을 위주로 보았으나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깊은 반면 상대적으로 유교의 영향은 상당히 적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유기』의 삼교관계는 상호의존적 공생관계임을 주장하였다.

최귀목<sup>105)</sup>은 최초로 『서유기』 중에 여성이 ‘약탈당하거나 추방되어 실절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수난과 귀환’ 모티브를 주목하고 여성의 정절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유기』 중에 이 모티브에 해당된 5명의 여성인물<sup>106)</sup>의 수난상을 분석하였는데, 여성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 귀환할 때 손오공이나 신불 등의 도움과 증언이 절실함을 밝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유기』는 ‘남성지배 사회의 유교 윤리를 옹호하는 판타지이며, 여성에게는 판타지 형식을 빌려 억압을 가하고 있다’<sup>107)</sup>고 분석하였다. 또한 『서유기』에서 삼교 관계 역시 다섯 명의 여성정절 과정에서도 최한용이 주장한 바대로 삼교의 조화로움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송정화<sup>108)</sup>는 『서유기』 중에 삽시(插詩)의 도교적인 특징과 문학적인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도교적인 특징은 삽시가 등장인물의 성격 및 관계를

102) 윤태순, 『『西遊記』 연구』, 선균관대학 대학원, 박사논문, 1995년.

103) 안지영, 『『西遊記』의 兒童文學的 性格 研究』, 高麗大學校 석사논문, 1996년.

104) 최한용, 『『西遊記』에 나타난 宗教要素』, 중국어문학논집, (57), 457-481, 2009년.

105) 최귀목, 『『서유기』에 형상화된 여성의 정절(貞節) 문제』, 문학치료연구/26, 2013년.

106) 5명의 여성인물은 승상의 딸 은온교(殷溫嬌)(제9회), 보상국(寶象國)의 셋째 공주인 백화수(百花羞)(제29회~제31회), 오계국(烏鷄國) 왕비(제37회~제39회), 주자국(朱紫國)의 금성(金聖)황후(제69회~제71회), 천축국(天竺國) 공주(제93회~제95회)가 있다.

107) 최귀목, 앞의 논문, P.267 참조.

108) 송정화, 『『서유기』 삽시(插詩)의 도교적 특징과 문학적 기능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論叢/65, 2014년.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인으로써 언급한 점, 작품 속에 숨겨진 도술적인 용어를 흥미롭게 해석하였다. 또한 삼시의 운문적 성격을 중시하며 선경을 응시하고 쉬어가는 입정(入靜)의 기능, 고상한 도교의 경전들을 패러디함으로써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해소의 장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서유기』의 주제 및 사상 연구는 불교로 출발하여 나중에 도교 및 유교적인 접근, 아동문학의 시각, 사상을 바탕으로 할 심리학적 접근, 여성문학의 시각으로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등장인물 연구

『서유기』의 등장인물에 관한 연구는 이상익<sup>109)</sup>의 논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상익은 『서유기』와 한국 고소설을 비교연구 하면서, 『서유기』의 주인공인 당삼장, 손오공, 저팔계를 비롯해 『서유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괴들을 간단하게 소개한 바 있다.

『서유기』의 등장인물 연구는 『서유기』에 관한 연구 성과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서유기』 중에 나타난 인물은 그 수만도 300명이 넘는다. 주요 인물인 취경단의 당삼장,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백용마 외에도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신불들과, 방해자에 해당하는 수많은 요괴들이 있어서 등장 인물에 대한 단일 연구의 성과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등장인물 연구는 서정희, 최한용, 이지애(李潔)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서정희는 『서유기』에 나타난 거의 모든 인물 형상을 연구하고 최한용은 신불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지애(李潔)는 주로 요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등장인물의 연구논문은 그 역할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

109) 이상익,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박사논문, 1980년.

다. 주인공인 취경단 인물에 대한 연구와 신불과 요괴를 통합한 신마들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세부적인 연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논문명	저자	발표유형
1988년	「『西遊記』의 人物之研究」	정동국	학술지
1994년	「『서유기』 신마고」	윤태순	학술지
1996년	「『西遊記』의 神佛과 妖魔關係研究」	최한용	석사논문
2000년	「中·印 猿猴故事와 손오공 형상」	장춘석	학술지
2001년	「『서유기』의 孫悟空人物형상小考」	成始勳	학술지
2002년	「중국 소설 속에서 살아온 잡종생물 - 『서유기』를 중심으로」	나선희	학술지
2005년	「『서유기』의 沙悟淨人物形象研究」	박춘영	학술지
2005년	「『서유기』의 成書過程과 主要 人物形象 研究」	朴春迎	박사논문
2006년	「『서유기』요괴연구」	이지에(李潔)	석사논문
2006년	「『서유기』의 唐三藏연구」	서정희	학술지
2006년	「『서유기』의 唐三藏연구Ⅱ-唐三藏의 「般若心經」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과 그 意義를 중심으로」	서정희	학술지
2007년	「『서유기』 요괴의 來源과 法力연구」	서정희	학술지
2008년	「『서유기』의 손오공 연구」	서정희	학술지
2009년	「『서유기』의 요괴연구」	서정희	학술지
2009년	「『서유기』에 나타난 신불들에 대한 풍자」	최한용	학술지
2010년	「『서유기』의 신불형상연구」	최한용	박사논문
2012년	「『서유기』용의 출몰, 말나의 그림자」	강경구	학술지
2016년	「한·중 소설에 나타난 용왕(龍王) 이미지 비교 연구」	장열	석사논문
2016년	「明代 神魔小說 『西遊記』와 『封神演義』의 二郎神 형상 小考」	유수민	학술지

<표10> 『서유기』의 등장인물 관련 연구논문

위의 표를 통해서 각 유형의 인물 연구의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중 주인공 손오공에 대한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은 편이며, 그 외에도 당삼장, 저팔계, 사오정등 개별 연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밖에도 신불 및 요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이 장에서는 개별 인물 및 신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취경단 인물

취경단의 五聖은 『서유기』의 주인공으로 모두 각자의 뚜렷한 성격을 갖는다. 작품의 중심축이며, 『서유기』가 갖는 매력의 원천이기도 한다. 취경단 인물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어 현재 이미 일정한 연구 성과가 누적되어 있다.

### ① 당삼장

당삼장은 『서유기』의 취경단의 중심 인물로, 무엇보다 유일하게 실재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서유기』의 근원인 서유고사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했고 한국에서도 당삼장 인물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제출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당삼장의 모습을 평범한 인간과 신성한 승려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소개하는 데 그쳤다.<sup>110)</sup> 그 후 정동국은 당삼장을 信邪風聽讒言 즉 사된 기운을 믿고 칭찬에만 귀를 기울이는 괴뢰(傀儡)라며 부정적인 인물로 보았다.<sup>111)</sup>

박춘영<sup>112)</sup>은 정동국과 달리 당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당삼장이라는 인물의 형성 과정을 서유고사와 관련하여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당삼장은 『대자은사삼장법사전』에서는 역사적인 인물로 불법을 선양하는 승려로 그려지나, 이후 『대당삼장취경시화』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신성한 가호가 강조되면서 차츰 성인의 색채가 입혀지고, 마지막으로 『서유기』잡극에서는 취

110) 이상익, 앞의 논문, P.102 참조.

111) 정동국, 「『西遊記』의 人物之研究」, 외국어교육연구 제3호, 1988년.

112) 박춘영, 「『서유기』의 成書過程과 主要 人物形象 研究」,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5년.

경 길에 개인의 역할이 더 적어지면서 신성한 인물이라는 성격이 한층 강화된다. 당삼장의 성격을 구체적인 작품 인용을 통하여 ‘불심과 충심이 하나인 스님’, ‘인심이 좋은 울보 스님’, ‘욕심이 없는 착한 스님’으로 보았다. 그리고 도교적인 오행(五行)의 상생상극 원리로 당삼장과 두 제자 손오공, 저팔계의 관계도 분석했다.

서정희는 당삼장의 행위와 심리 반응을 통해서 당삼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내재된 보통 사람이었으나, 당삼장이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佛性을 깨닫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당삼장은 인간이 자기 인식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자기 연민과 자아중심에서 벗어나 세계와의 합일된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로 분석하였다.<sup>113)</sup> 또한 서정희는 당삼장의 『般若心經』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과 그 意義를 중심으로 당삼장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진행했다. 당삼장이 서천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般若心經』에 대한 一切皆空을 깨닫게 되는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당삼장과 같이 진정한 용기와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평범한 삶을 종식시키고 참 본성을 회복하여 대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sup>114)</sup>

이와 같이 당삼장에 대한 연구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단순한 가치 평가에서 출발하여 이후 종합적인 인물 평가가 이루어졌고, 연구방법에서도 단순한 인물 형상에 대한 연구로 그치지 않고 종교사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드러내면서 연구의 깊이가 심화되었다.

## ② 손오공

113) 서정희, 「『서유기』의 唐三藏연구」, 中語中文學/(38), 2006년, P.432.

114) 서정희, 「『서유기』의 唐三藏연구Ⅱ-唐三藏의 「般若心經」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과 그 意義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38), 2006년, P.246.

손오공에 대한 연구는 『서유기』 연구를 대표할 만큼 양적 면에서 가장 앞서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작품론에서부터 기원설과 인물에 담긴 종교 사상 등 다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일찍이 이상익은 손오공을 현실주의자로, 기지(機智)와 용기 그리고 신통력을 가진 동시에 자부심도 대단한 영웅으로 보았다.

정동국은 부정적인 인물인 당삼장과 달리 손오공은 천지에서 태어난 영웅으로 정의롭고 낙관적이며 충성스러운 인물로 평가했다.<sup>115)</sup>

장춘석<sup>116)</sup>은 주로 손오공의 기원에 대한 논했다. 그는 손오공을 중국 본토의 설화에 등장하는 원숭이의 모습을 기반으로 이후 인도에서 전입된 설화의 원숭이 이미지가 덧붙여져 창조된 인물이며, 따라서 『서유기』에 나타나는 손오공이라는 인물은 중국과 인도 각각의 모티프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흡수하여 보다 입체적인 인물로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성시동<sup>117)</sup>은 『서유기』 인물 창작의 배경인 신화에 주목하여 손오공을 ‘중국인의 민족 의식 구조 속의 신화 요소에서 탄생한 영웅’으로 보았다.<sup>118)</sup> 또한 손오공이라는 인물에서 두 가지 의의를 부여했다. 우선 외면적으로는 요괴로 대표되는 사악한 세력과의 싸우는 민족영웅이고, 내면적으로는 참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내적 성숙을 갖추는 인간의 모습이 그것이다.

나선희는 손오공을 ‘인간이 지닌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 잡종성을 가진 잡종생물로 규정하였다. 원숭이와 인간의 잡종인 손오공은 원숭이의 뛰어난 운동성을 가지고 천상과 지하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손오공 성격이 형성되는 변천 과정을 제시했다. 『대당삼장취경시화』에서는 흰 옷을 입은 수재의 형상으로 불교적인 원숭이로 묘사되다가

115) 정동국, 앞의 논문, P.P.128~133.

116) 장춘석, 「中·印 猿猴故事와 손오공형상」, 중국소설논총 제12집, 2000년.

117) 성시동, 「『서유기』의 孫悟空人物형상小考」, 培花論叢 제20집, 2001년.

118) 성시동, 위의 논문, P.80.

『서유기』 잡극의 단계에서는 요마의 성질이 강화된 원숭이의 이미지로 드러나고, 이후 백화본 『서유기』에서는 종교적인 성격과 요마적인 성격이 축소되면서 현재 긍정적인 모습의 손오공으로 자리 잡게 된다.<sup>119)</sup>

박춘영<sup>120)</sup>은 손오공의 기원과 인물의 형성과정,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었다. 손오공의 기원에 대해서 박춘영은 기존의 本土說, 인도에서 들어오는 輸入說, 중국과 인도의 混血說, 불전에서 온 佛典說을 소개한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모습을 취해 하나로 합성(雜取種種, 合成一個)된 것’ 이라고 보았다. 손오공의 인물 형성과정은 『대당삼장취경시화』에서 견식과 지혜 및神通력을 겸비하는 수행자 형상과 잡극 『서유기』에 妖氣와 불량이 있는 ‘淫猴’의 이미지를 경과하여 『서유기』에 이르기까지 ‘낙관적이고 향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위에 반항하고 자주의식이 있는 미후왕’ 손오공의 형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손오공의 행적을 통해서 구현되는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했다.<sup>121)</sup>

서정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도입하여 『서유기』의 진(眞)/가(假) 손오공 이야기에 대한 정신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가짜 손오공도 ‘손오공의 마음에서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욕구, 충동, 욕망이 문학적인 형상화를 통해서 탄생된 인물’ 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서유기』 작자는 손오공이 가짜 손오공을 이긴 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보았다.<sup>122)</sup>

이상과 같은 손오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손오공은 대부분 긍정적인 영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원 배경으로는 중국과 인도의 혼혈(混血) 설을 주장하는 연구자가 많다. 손오공에 대한 연구도 연구범위가 점점 확장되

119) 나선희, 「중국 소설 속에서 살아온 잡종생물 - 『서유기』를 중심으로」, 중국중문학 제30집, 2002년, P.341.

120) 박춘영, 「『西遊記』의 成書過程과 主要 人物形象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05년.

121) 박춘영, 위의 논문, P.201.

122) 서정희, 「『서유기』의 손오공 연구」, 中語中文學 제42집, 2008년, P.61.

어 처음에는 단순히 인물성격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인물의 기원과 형성과정과 종교적, 정신분석학적 의미 연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서유기』의 가장 매력적인 주인공인 손오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각도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저팔계

저팔계는 『서유기』 중에 손오공보다는 적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갖는 생동감 있는 인물이다. 『서유기』 인물 연구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편수를 확보하며 인물 전반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 혹은 단독 대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우선 이상익<sup>123)</sup>은 『서유기』와 한국고소설을 비교 연구하면서 주요 인물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시도하였는데, 저팔계는 손오공과 대조되는 인물로 보았다. 저팔계는 괴물과 같은 외모와 놀라운 힘을 가지며, 인간의 욕구 중 본능적인 식욕(食慾)과 색욕(色慾)이 강하게 묘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적인 성격 외에도 저팔계는 ‘愚直하고 天真한 면, 狡猾하고 怠惰한 면’ 등의 희극(喜劇)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았다.

정동국은 저팔계를 이기적이고 충성심이 없고 탐욕이 많은 부정적인 인물로 분석하였다. 나선희는 돼지가 원형인 저팔계의 본성은 욕심이 많고 인간과 돼지의 모습이 섞인 잡종생물이라고 보았다.<sup>124)</sup>

이처럼 저팔계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박춘영<sup>125)</sup>은 저팔계의 긍정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저팔계의 인물 형성 과정에도 구체적인 연구를 하였다. 우선 『서유기』 중에 저팔계의 기원 문제

123) 이상익, 앞의 논문, P.104.

124) 나선희, 「중국 소설 속에서 살아온 잡종생물- 『서유기』를 중심으로」, 중국중문학 제30집, 2002년, P.P.346~348.

125) 박춘영, 앞의 논문, P.P.210~234.

에 대해 중국 전통문학 작품에 나타난 돼지의 특징을 저팔계와 비교해서 저팔계가 중국의 전통적인 돼지 모티프에서 비롯된 형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잡극 『서유기』에서 ‘검은 돼지신’, ‘음탕하나 법력이 높은 돼지신’, ‘삼장법사의 셋째 제자인 돼지신’ 등 신성한 면모를 가진 인물로 분석하였다. 저팔계를 성실하고 근면하며, 솔직 단순하며, 기발하고 해학(諧謔)적이고, 성심성의껏 예불(禮佛)하는 긍정적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이상으로 저팔계의 형상은 신화적 원형, 성격, 종교적인 의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팔계는 중국 본토를 기원으로 탄생한 인물로, 다각적인 면모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사오정

초창기 연구에서 주인공을 당삼장과 손오공, 저팔계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사오정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인공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다. 사오정에 대한 최초의 연구 시도는 정동국으로 볼 수 있었다. 그는 사오정을 당삼장의 명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고생을 감내하는 인내심 많은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했다.

나선희는 잡종생물의 시각으로 사오정을 요마적인 존재라고 보고, 사오정은 손오공과 저팔계 간의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기능과 음식을 구해오는 등 여행길의 안내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분석했다.<sup>126)</sup>

박춘영<sup>127)</sup>은 사오정이라는 인물의 형성 과정과 성격, 주인공 간의 관계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사오정의 인물형상은 일찍이 『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서 삼장법사가 서행길에 만났던 사막(沙漠)의 자연 현상(現象)으로 출발하여 후에 『취경시화』에 이르러서 심사신(深沙神)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삼장을

126) 나선희, 앞의 논문, P.P.348~351.

127) 박춘영, 앞의 논문, P.P.235~245.

도와준 역할이 있다. 『서유기』 잡극에 이르러서는 사오정의 인물형상은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여, 이러한 관점은 백회본 소설 『서유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사오정의 성격은 긍정적으로, 고생을 잘 견디고 희생적이며, 말수가 적고, 신중하여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인공과 관계 면에서 볼 때 사오정은 당삼장에게 공손하고 복종하는 관계, 손오공에 대한 존경과 부러움의 관계, 저팔계에 대한 이해하고 동정하는 관계를 맺는다고 분석하였다.

사오정의 손오공과 저팔계 같은 주인공에 비해 그다지 개성적이지 않지만, 등장 인물의 관계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형상이다. 이러한 점이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사오정 캐릭터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백용마(白龍馬)

백용마는 당삼장의 제자가 아니고 탈것이지만 서행길의 중요한 일원이기도 한다. 백용마는 원래 말이 아니고 서해용왕의 아들이었다. 그의 신세에 대한 원문 중에 관음보살의 말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그놈은(백용) 본래 서해 용왕 오운(敖閏)의 아들인데, 불장난을 하다가 하늘 궁정(宮庭)의 명주(明珠)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의 부친이 그를 불효죄를 상소하여 하늘에서는 죽을 죄를 지은 상태였다. 그런 것을 내가 직접 오황상제를 만나, 그놈을 아래 세상으로 보내 당나라 승려의 탈것으로 삼자고 부탁드렸지.’<sup>128)</sup>

취경단의 일원이지만 백용마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백용마의 작중 역할과

---

128) 吳承恩 著, 서울대학교 서유기번역연구회 번역, 『서유기』 제3권, 솔출판사, 2004년, P.136.

관련하여 당삼장의 다리가 되어 짐을 챙기는 것으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나선희의 평가 정도가 전부였는데<sup>129)</sup> 이후 용(용왕)의 이미지와 연관지은 논의가 시도되었다. 강경구<sup>130)</sup>의 용 형상의 불교적인 의미 탐구와 장열<sup>131)</sup>의 한·중 소설에 나타난 용왕 이미지와 의의에 대한 비교연구가 그것이다.

## (2) 신마(神魔)

흔히 신마는 신불과 요마를 총칭하는 것으로, 『서유기』의 환상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신마 연구 중에 요괴연구는 1980년대에 단편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신불 연구는 1990년대부터 단독적인 연구 주제로 특히 박사논문의 성과가 돋보인다. 『서유기』의 등장하는 신불과 요괴 연구를 세분하지 않고 살펴보기로 한다.

『서유기』에는 실로 다양한 요괴들이 등장한다. 주인공이 서천으로 향하는 도중에 만나는 요괴의 빈도수를 볼 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군이기도 하다.

이상익<sup>132)</sup>은 요괴를 출몰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천상형과 지상형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고 이를 표로 제시하였다.

그 후 윤태순<sup>133)</sup>은 중국 연구자 하지청(夏志清)의 분류기준을 수용하여 요괴를 천상형과 지상형으로 분류하고, 이상익의 분류방법보다 더 세분화시켜서 천상형 요괴는 다시 네가지로 분류하였다. 신불의 탈 것이었던 동물 요마, 천상에서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하계로 내려가는 요마, 신불의 심부름을 하던 동자 요마와 신불의 주변에서 수양하던 동물 요괴<sup>134)</sup> 등이 세분화된 천상형

129) 나선희, 「『西遊記』 연구-호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1년.

130) 강경구, 「『西遊記』, 용의 출몰, 말나의 그림자」,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2집, 2012년.

131) 장열, 「한·중 소설에 나타난 용왕(龍王) 이미지 비교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논문, 2016년.

132) 이상익, 앞 논문, P.P.107~110.

133) 윤태순, 「『서유기』 신마고」, 중국학연구 제8집, 1994년.

요괴 유형으로 이들의 출신부터 사적까지 자세히 소개하였다.

최한용<sup>135)</sup>은 이후 『서유기』의 신불과 요마의 관계 연구의 전제로 요마의 분류와 특징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는 하지청의 분류 기준에 따라 『서유기』의 요마는 천상형과 지상형으로 구분하였지만, 이를 다시 7개의 천상형 유형과 4개의 지상형 유형으로 보다 세분하였다. 천상형 요괴에 속하는 7개의 유형은 신불이 타던 동물요괴, 천상에서 신불의 심부름을 하던 동자 요괴, 신불의 주변에서 수양하던 동물 요괴, 천상에서 사랑을 펼 수 없어 하계에 내려오는 요괴,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복수하려고 된 요괴, 신불의 시사에 의하여 내려온 요괴, 신불의 은혜를 못 잊는 요괴<sup>136)</sup> 등이며, 지상형 요괴에 속하는 4개의 유형은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주인공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백성뿐만 아니라 주인공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인간과 공존하는 경우<sup>137)</sup> 등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요괴의 특징을 사악한 세력의 화신으로서, 長生不老을 추구하고 보물과神通력을 갖고 있다<sup>138)</sup>고 주장했다. 이후 요마 간의 관계를 인간 관계를 비유하여 친척관계, 동맹관계, 사랑관계, 원한관계, 갈등관계로 나누어서 각 유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소개했다.

최한용<sup>139)</sup>은 「『西遊記』의 神佛과 妖魔關係研究」에서 우선 모든 신불들의 특징, 신불과 요마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들을 통해 반영되는 작가의 의식에 대한 연구를 했다. 모든 신불은 다 각자의 특징을 가지는데 옥황상제는 국왕과 같은 최고 통치자로 신들의 우두머리이며, 태상노군은 도교의 신으로, 여래는 서천취경을 제안한 신불로, 관음보살은 서천취경의 지지자이며 자비로운 보살로서 묘사된다고 연구했다.<sup>140)</sup> 신불과 요마의 관계는 크게 신마 일체

134) 윤태순, 앞의 논문, P.P.129~130 참조.

135) 최한용, 「『西遊記』의 神佛과 妖魔關係研究」, 연세대 석사논문, 1996년.

136) 최한용, 위의 논문, P.P.8~9.

137) 최한용, 위의 논문, P.13.

138) 최한용, 위의 논문, P.30.

139) 최한용, 「『西遊記』의 神佛과 妖魔關係研究」, 연세대 석사논문, 1996년; 「『서유기』에 나타난 신불들에 대한 풍자」, 중국어문학논집(58), 2009년; 「『서유기』의 신불형상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0년.

설과 신마 대립설로 나뉜다. 신마일체설의 관점은 신불들이 천상계에서 내려가서 요괴가 된 이들의 악행을 묵인하고 다시 등용하는 면, 신불도 요마처럼 때로는 인간에게 악을 행하는 면, 신불과 요마의 밀접한 관계 면을 근거한다. 그리하여 신마관계 속에 나타난 저자 의식은 사회현실을 비판, 종교를 비판, 그리고 저자의 지향한 인간존중 사상과 삼교합일 사상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sup>141)</sup>

2006년에 이르러서야 선학들의 요괴연구를 기반으로 『서유기』의 요괴를 주요한 연구 주제로 삼은 최초의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지에(李潔)<sup>142)</sup>는 중국 각 시대의 관련 문헌을 정리하고 『서유기』의 시대적인 배경인 명청 시기의 신마소설을 대상으로 섭렵하여 요괴의 정의에서부터 유형, 본질,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했다.

우선, 이지애(李潔)도 하지청의 논의에 따라 요괴를 천상형과 지상형으로 분류하고 천상형 요괴를 불교적 요괴와 도교적 요괴로, 지상형 요괴는 불교를 신앙 여부에 따라 신불(信佛)형과 불신(不信)형으로 구분하였다. 요괴의 본질로 물성, 마성, 인성을 제시하고 각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첫째, 요괴의 물성은 요괴의 원형 본래적 특성으로 보았다. 물성에 따라 다시 식물형 요괴와 동물형 요괴로 유형화되는데, 상대적으로 동물요괴는 동적(動的)이고 식물요괴는 정적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요괴의 마성은 초월적 능력, 요괴의 惡行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보았다. 셋째, 요괴의 인성은 주로 요괴가 인간의 감정을 가진 측면이나, 인간의 사회구조를 갖춘 면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괴의 가장 큰 특징인 욕망을 꼽으며, 욕망의 내용, 욕망과 갈등, 욕망 실현 공간, 요괴의 상징적 의미 등 4개의 방면에서 다루었다. 요괴의 욕망은 크게 식욕, 색욕, 권력욕, 재물욕, 불로장생에 대

140) 최한용, 「『西遊記』의 神佛과 妖魔關係研究」, 연세대 석사논문, P.31.

141) 최한용, 위의 논문, P.107.

142) 이지애, 「『서유기』 요괴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6년.

한 욕망 등 다섯 가지 위주로 발현한다. 요괴들은 불로장생하기 위해 당삼장의 고기를 먹거나 삼장과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해 삼장의 제자나 신불과 마찰을 빚지만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며, 욕망의 상징적 의미는 때로는 현실 사회의 악을 상징한다고 분석하였다.

이후 서정희<sup>143)</sup>는 요괴의 내원, 법력, 본질과 특징 면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분류 기준은 요괴를 유형별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괴들이 하강한 이유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그리고 요괴의神通력을 법신과 법보(法寶)의 관점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서유기』에 등장하는 요괴의 본질과 특성은 물성과 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존재, 신성을 향하여 열려있는 존재, 사실상 모두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멸하는 수많은 욕망들을 형상화하여 탄생한 존재라고 결론지었다.

최한용은 이후 박사논문을 통해 신불의 정의에서부터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적 배경, 신불의 분류와 특징, 신불의 형상과 본질, 신불에 대한 풍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신불을 연구했다. 『서유기』 신불 연구는 최한용에 의해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쌓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유수민<sup>144)</sup>은 『서유기』 나타났던 신불 중에 이랑신(二郎神)을 단독 연구 대상으로 삼아 중국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신마소설인 『봉신연의(封神演義)』 중 이랑신과 비교 연구하였다.

이후에는 『서유기』 요괴에 대한 연구 방향은 문학의 범주를 넘어 문화콘텐츠 차원의 연구로 확장되었다.

이상과 같이 『서유기』의 등장인물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당삼장, 손오공, 저팔계 외에는 단독 인물 연구보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물 유형으로 묶어서 연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물의 성격이나 기원 및 변천 과정, 인물간의 관계나 의미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거쳐 최근에는 문화콘텐츠 차

143) 서정희, 「『西遊記』요괴의 來源과 法力연구」, 中國學研究 제42집, 2007년; 「『서유기』의 요괴(妖怪)연구」, 中國學研究 제49집, 2009년.

144) 유수민, 「明代 神魔小說 『西遊記』와 『封神演義』의 二郎神 형상 小考」,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No.4, 2016년.

원에서의 원형 및 소재적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다.

#### 4) 문화콘텐츠관련 연구

『서유기』는 동양 판타지의 시조이자 동양적 상상력의 원천이다. 2000년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에서도 확대 생산되고 있는 있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창작물의 활용방안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유기』는 국문학이나 중문학의 범주를 넘어 문화콘텐츠학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연도	논문명	저자	발표유형
2008년	「중국 전통 소설 『서유기』의 캐릭터 디자인 표현방법에 관한연구」	풍리화	석사논문
2008년	「중국 『서유기』 테마파크 조성 방안」	한령	석사논문
2010년	「한중일 대중문화에 나타난 사오정 이미지의 특징」	송정화	학술지
2010년	「한·중·일 만화 캐릭터디자인 연구-『서유기』, 『삼국지』, 『수호지』 중심으로」	김강	석사논문
2011년	「저팔계론-중국의 돼지문화 전통에서 문화콘텐츠 활용까지」	안창현	학술지
2013년	「한중일 대중문화에 수용된 삼장 이미지에 대한 연구」	송정화	학술지
2013년	「문화 콘텐츠 원천 소스로서 『서유기』의 구조 분석과 활용 전략 연구」	안창현	박사논문
2015년	「『서유기』를 통해 본 문화원형의 계승과 변용」	송원찬	학술지
2015년	「디지털 동화책 『서유기』 제작 연구」	신홍옥	석사논문
2016년	「현대 애니메이션의 중국 전통문화요소 활용과 창조성 : 애니메이션 <몽키킹:영웅의 귀환>을 중심으로」	원청사	석사논문

<표11> 『서유기』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위의 도표에서 제시한 바대로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는 『서유기』의 캐릭터 디자인 및 테마파크, 그리고 문화원형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서

유기』의 깊이 있는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서유기』에 대한 활용 및 응용 방안에는 많은 영향력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령<sup>145)</sup>은 『서유기』의 인물, 공간 배경, 이야기 스토리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서유기』 테마파크를 조성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풍리화<sup>146)</sup>는 캐릭터 디자인 측면에서 『서유기』 인물의 원형과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한국과 일본의 『서유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델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송정화<sup>147)</sup>는 한중일 대중문화에 나타난 사오정 이미지의 특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도하였고 이후 삼장 이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 후 김강<sup>148)</sup>은 한중일 만화 캐릭터디자인 연구를 연구대상으로 『서유기』의 인물 원형은 다르게 나타난 캐릭터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서유기』의 문화콘텐츠 연구는 안창현<sup>149)</sup>에 의해서 깊이있게 다루어졌다. 안창현은 주로 『서유기』의 독특하고 환상적인 캐릭터들, 이중적인 스토리구조, 천상부터 지옥까지의 판타지 세계라는 세가지 방향으로 문화콘텐츠 원천 가치에 주목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종합적으로 문화콘텐츠 연구를 집대성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창현<sup>150)</sup>은 중국의 전통적인 돼지 형상을 분석하고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으로의 저팔계 형상을 고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송원찬<sup>151)</sup>, 신흥옥<sup>152)</sup>, 원청사<sup>153)</sup> 등의 『서유기』 문화콘텐츠 연

---

145) 한령, 「중국 『서유기』 테마파크 조성방안」, 韓國外國語大學校 석사논문, 2008년.

146) 풍리화, 「중국 전통 소설 『서유기』의 캐릭터 디자인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석사논문, 2008년.

147) 송정화, 「한중일(韓中日)대중문화에 나타난 사오정(沙悟淨) 이미지의 특징」, 中國語文學誌 제34집, 2010년; 「한중일(韓中日) 대중문화에 수용된 삼장(三藏) 이미지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論叢 제56집, 2013년.

148) 김강, 「한·중·일 만화 캐릭터디자인 연구」, 忠南大學校 석사논문, 2010년.

149) 안창현, 「문화콘텐츠 원천소스로서 『서유기』의 구조분석과 활용 전략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3년.

150) 안창현, 「저팔계론-중국의 돼지문화 전통에서 문화콘텐츠 활용까지」, 문화예술콘텐츠 제7집, 2011년.

151) 송원찬, 「『서유기』를 통해 본 문화원형의 계승과 변용」,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제11집, 2014년.

152) 신흥옥, 「디지털동화책 『서유기』 제작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5년.

153) 원청사, 「현대 애니메이션의 중국 전통문화요소 활용과 창조성 : 애니메이션 <몽키킹:영웅의

구도 있다. 앞으로 이 방향의 연구는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서유기』의 문화적 가치가 발굴될수록 더욱 활발히 연구될 분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5) 기타 연구

앞서 살펴본 각 주제별 연구 외에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있다. 『서유기』에 대한 공간, 사건, 구조, 서사 등과 관련된 것으로 대표적으로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논문명	저자	발표유형
1997	「고대 중국인의 공간에 대한 이해」국회 원문	나선희	학술지
2001	「명대소설 『서유기』에 나타나는 세계와 그 의미」	나선희	학술지
2008	「『서유기』에 나타나는 총체적인 세계구성과 개별적 인물들의 갈등양상 및 문학성 연구」	박승혜	석사논문
2001	「『서유기』 연구 - 호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나선희	박사논문
1980	「『서유기』 대노천궁」	윤태순	석사논문
2008	「『西遊記』의 緊箍兒 연구」	서정희	학술지
2011	「『서유기』에 나타난 웃음에 대한 고찰 - 낯섬과 추악함을 통한 전복(顛覆)의 미학」	송정화	학술지
2011	「『서유기』에 나타난 식인(食人)의 의미에 대한 고찰 - 신화(神話), 종교(宗教)的 분석을 중심으로」	송정화	학술지
2016	「『서유기』의 인삼과(人參果) 고사(故事)의 형성 과정에 대한 종교, 문화적인 탐구」	송정화	학술지
1992	「『서유기』 연구 - 싸움의 구조를 중심으로」	나선희	석사논문
1996	「『서유기』의 구조와 논리」	정원지	학술지
2012	「『서유기』에 나타난 천리와 인육의 대립 구조」	서정희	학술지

<표12> 『서유기』 공간 및 구조 등 관련 연구

### (1) 『서유기』의 공간

귀환>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6년.

『서유기』의 공간 연구는 주로 나선희<sup>154)</sup>에 의해 나타난다. 『서유기』에 소설적으로 구현되는 허구적인 세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 세상’ (현실세계)과 ‘저 세상’ (비현실세계)으로 만든 겹쳐진 공간에 대한 특징, 의미, 공간에서 활동한 인물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그 후에 박승혜<sup>155)</sup>는 나선희의 연구방향과 동일하되, 우주(宇宙)의 구도와 질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이 우주 내에서 전개되는 등장인물간의 갈등 관계를 분석하고 이 우주를 통해서 반영된 작가의식까지 고찰하였다.

## (2) 『서유기』의 사건

『서유기』 작품을 완성시키는 큰 서사 틀은 대노천공, 81년, 취경귀환(取經歸還)이며,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면 81개 이상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중 사건별 혹은 단편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부분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서유기』의 사건 연구는 윤태순의 ‘대노천공’ 으로부터 시작으로 서정희의 緊箍兒 연구, 송정화의 『서유기』에 나타난 웃음과 식인(食人) 그리고 인삼과(人蔘果) 고사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윤태순<sup>156)</sup>은 『서유기』의 3단 내용 중에 제일 부분을 해당하는 손오공을 천공에서 소란을 일으킨 ‘대노천공’ 사건의 내용과 내원 그리고 이를 통해 본 작자의식을 위주로 분석했다. 서정희<sup>157)</sup>는 『서유기』 중에 손오공이 머리 위에 쓴 긴고아(緊箍兒)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긴고아의 욕망을 제한하는 의미를 밝혔다. 송정화<sup>158)</sup>는 우선 『서유기』의 희극적 특징인 웃음의 발생요인

---

154) 나선희, 『『西遊記』 연구-허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1년.

155) 박승혜, 『『西遊記』에 나타나는 總體的인 世界 構成과 個別的 人物들의 葛藤 樣相 및 文學性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8년.

156) 윤태순, 『『서유기』 대노천공』,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0년.

157) 서정희, 『『西遊記』의 緊箍兒 연구』, 中國學研究 제46집, 2008년.

과 의미를 분석하고 식인(食人)의 주체와 대상물 등을 다각도로 고찰하면서, 『서유기』 중에 인삼과 고사의 형성과정과 의미를 탐구하였다.

### (3) 『서유기』의 구조

나선희<sup>159)</sup>는 『서유기』 중에 대결의 구조를 중심으로 주인공 일행의 내부적인 성격 갈등과 외부적인 요괴들과 대결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정원지<sup>160)</sup>는 이전의 연구자가 주목받지 않았던 제8회부터 제12회까지 나타난 적강(謫降)구조를 통해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주제 사상을 밝혔다.

서정희<sup>161)</sup>는 사상적 측면에서 『서유기』 중에 나타난 송명이학(宋明理學)적인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의 대립 구조를 언급하였다.

이 외에 송진영<sup>162)</sup>, 이정재<sup>163)</sup>의 『서유기』의 서사 특징관련 연구도 눈여겨 볼만 한다.

지금까지 서유기 연구 현황을 주제별로 비교연구, 주제와 사상연구, 인물연구, 문화콘텐츠 연구, 기타 연구를 나눠서 각 유형별의 연구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다.

---

158) 송정화, 「『서유기』에 나타난 식인(食人)의 의미에 대한 고찰 -신화(神話), 종교(宗教)의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제37집, 2011년; 「『서유기』에 나타난 웃음에 대한 고찰 -낮섬과 주악함을 통한 전복(顛覆)의 미학」, 中國語文學誌 제36집, 2011년; 「『서유기』의 인삼과(人參果) 고사(故事)의 형성과정에 대한 종교, 문화적인 탐구」, 中國語文論叢 제73집, 2016년.

159) 나선희, 「『西遊記』研究--싸움의 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大學院 석사논문, 1992년.

160) 鄭元祉, 「『西遊記』의 構造와 論理」, 中國人文科學 제15집, 1996년.

161) 서정희, 「『西遊記』에 나타난 天理와 人欲의 대립구조」, 中語中文學 제51집, 2012년.

162) 송진영, 「『서유기』 현상으로 본 중국 환상서사의 힘」, 中國語文學誌 제33집,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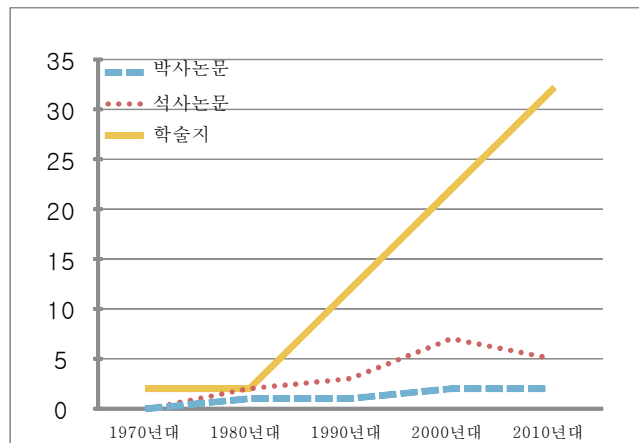
163) 이정재, 「元明代 祭儀演行에 수용된 『西遊記』 敍事의 성격」, 中語中文學 제56집, 2013년.

#### Ⅳ. 『서유기』 연구의 한국적 특징과 의미

앞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연구된 『서유기』의 연구 현황을 시기별과 주제별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유기』 연구의 증가 추세를 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연대	박사논문	석사논문	학술지논문	총계
1970년대~	-	-	2	2
1980년대~	1	2	2	5
1990년대~	1	3	12	16
2000년~	2	7	22	31
2010년~	2	5	32	42
합계	6	17	70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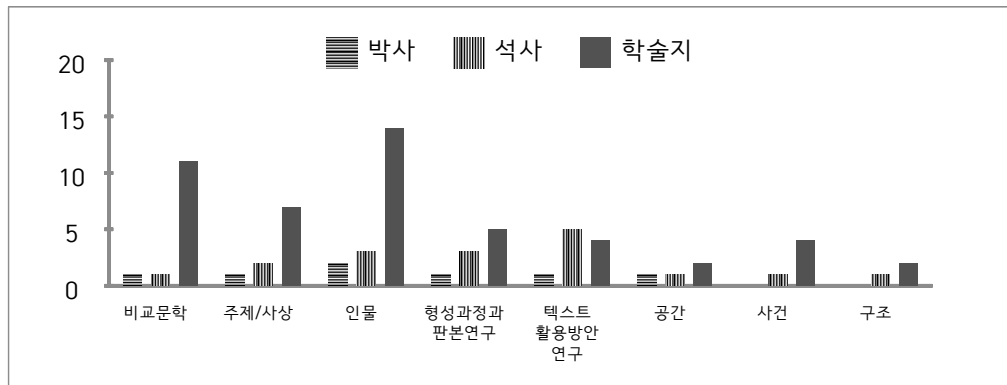
<표13> 『서유기』 연구 논문 수량 통계



<그림12> 『서유기』 논문 수량 증장도

위에 그래프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서유기』를 연구하고 발표한 박사논문 6편, 석사논문 17편, 학술지 논문 70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표를 통해서 『서유기』에 대한 연구의 양이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인 연도가 1990년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과 한국이 정식 수교를 맺으면서 『서유기』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폭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주제별 연구 성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림13> 『서유기』 주제별 논문 수량도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서유기』 연구는 제일 많은 연구 주제는 비교문학, 주제 및 사상 연구, 인물연구, 형성과정과 판본연구, 텍스트 활용방안 연구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건, 구조, 서사 연구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 『서유기』 연구는 아직 본격적인 단계라고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한국의 『서유기』 연구전반은 양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볼 때 수준이 높고 한국적인 특색이 있는 연구물이 많다.

가장 한국적인 특색을 가진 연구 주제는 바로 비교문학연구를 말할 수 있다. 중국 신마소설 『서유기』와 한국 고소설간의 비교연구는 한중소설의 친연관계를 비교하는 동시에 한국 고소설의 특징과 개성도 강조한다. 주로 사상적인 영향, 주제면의 영향 등을 받았지만 당시 조선의 사회적, 사상적 측면에서 한국식으로 소설을 재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시에 비교 연구는 『서유기』 연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후에 『서유기』의 형성과정, 주제, 구성, 인물, 배경, 문체, 한국에 수용양상 등 다방면으로 『서유기』의 기초적 연구를 하였다. 튼실하게 『서유기』의 비교 연구는 한국의 가장 특색있

는 연구 주제로 『서유기』가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학적 보물창고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 하나의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주제가 바로 『서유기』의 수용양상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서유기』가 한국에 유입시기, 유입방법, 유입판본, 그리고 번역양상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서유기』의 한국에 수용양상 연구는 한국에서 작품의 가치를 드러냄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서유기』의 세계화를 탐구할 때에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통사언해』에서 발견한 『고본서유기』는 전 세계의 『서유기』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필수적인 귀중한 문헌자료이다.

중국에서 『서유기』 연구사의 집대성자인 竺洪波의 『四百年西遊記學術史』 중에서는 당대의 『서유기』 연구를 크게 源流論, 版本論, 作者論, 思想與藝術論으로 세분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제1시기는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문화혁명 시기에 계급투쟁과 연관 지어 해석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서유기』의 주제 연구에 집중했던 시기다. 제2시기는 80년대 중후기이며 주로 『서유기』의 저자연구, 成書과정 연구, 판본 문제에 대한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제3시기는 바로 8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러서 『서유기』 연구가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사상연구, 신화원형, 종교 문화 연구 등 상당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sup>164)</sup> 중국에서도 2000년에 들어와서 『서유기』가 판타지 원천으로써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대체로 당대에 한중의 『서유기』 연구는 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부터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고 양국 학자들이 주목한 주제도

---

164) 审视整个新时期《西游记》研究历程，从时间的纵向上大致可分为三个时段：第一时段是70年代末至80年代初，主要集中于对《西游记》主题的研究，初步消除了过去极左思潮和庸俗社会学对作品性质的侵蚀；第二时段在80年代中后期，比较集中地讨论了作者、成书、版本等基础学科层面问题，《西游记》研究开始全面展开；第三时段是指80年代末至90年代以来，《西游记》研究朝多元、纵深态势发展，出现了一浪旨在发掘作品深层次思想内涵的文化研究，在审美文化、神话原型批评和宗教文化研究方面尤为成绩卓著。竺洪波，『四百年西遊記學術史』，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2005年，P.P.167~168.

유사하지만 동일한 연구주제인데도 분석하는 시각이나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양국에 다르게 보는 연구주제에 대한 본 연구자의 비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보고 주로 한국의 『서유기』 연구 특징을 도출하기로 한다.

첫째, 한국적인 특색을 가진 또 하나의 연구 주제는 바로 주제 및 사상 연구를 들 수 있다. 중국에 당대의 『서유기』 주제연구는 가장 큰 관심으로 지속력을 가진 연구 주제이고 인물, 사건, 구조 등 텍스트 연구들도 다 주제를 밝히려고 하는 다양한 연구방법이다. 현재까지 이미 많은 주제설이 나오지만 현재까지도 학자들 간에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주제설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중국에 『서유기』 주제 연구는 문화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래 동안 계급투쟁(階級鬪爭)의 정치시각으로 문학작품 『서유기』를 해석하고 연구하였다. 90년대에 들어 와서 주제설이 다원화되고 『서유기』의 종교 주제설 특히 도교의 金丹大道설이 많이 등장하지만 중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서유기』는 종교소설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sup>165)</sup> 반면 한국의 『서유기』 주제 연구는 종교 및 사상과 관련된 주제로 접근하여 특히 불교의 교화 작용을 강조하는 분석이 대다수이다. 그리하여 중국과 달리 한국의 『서유기』 주제 연구 환경은 오히려 개방적이며 사상의 편폭도 매우 심화된 상태로까지 도달하였다.

둘째, 그 외 다른 연구주제는 양국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서유기』의 공간 관련 연구는 한국에서만 진행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바로 나선희와 박승혜의 『서유기』에 대한 공간 연구는 『서유기』에 내재된 다양한 세계를 체계화시키고 천상 및 지상 그리고 지하, 용궁 등을 도식화하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등장인물과 연결시켰다.

---

165) 《西遊記》本質上是藝術,不是宗教,這一派的研究隱含著將《西遊記》視為宗教文本、異化其藝術本體的危險,從另一個方面違背了作品的實際。客觀地說,把《西遊記》的主題界定為“金丹大道”,實際上是將這部名著的豐富思想消解了。竺洪波, 앞 논문, P.243.

『서유기』의 공간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한국 독자들에게 공간에 담겨있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서유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다음 『서유기』의 기존 연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학문적 의미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 면에서 보면 수백 년의 형성과정을 거쳐 완성된 『서유기』는 단순히 유일한 주제를 가진 것이 아니고 각 시기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흡수하여 다양한 주제를 내포한 작품라는 점이다.

둘째, 인물 형상 면에서 봤을 때 주인공인 당 삼장,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각자 독특하고 선명한 성격을 가지고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줄 뿐만 아니라 신불, 요마까지도 완전히 악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미를 간직한 세속화된 인물형상이라서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81년의 대립구조가 지닌 독립성이라는 장점을 말할 수 있다. 한 난은 바로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되어 각 이야기 간에 서로 독립하지만 각 난은 상호 친밀한 영향관계 속에 놓인다. 그리하여 독자 입장에게 볼 때 서사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넷째, 『서유기』는 동양의 판타지 원천으로써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많이 발굴되어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책 등 다양한 텍스트 활용방안을 통해서 『서유기』 감상의 폭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認知度)가 높아졌다.

『서유기』의 문학적인 가치를 요약하려면 우선 유, 불, 도 삼교의 사상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 고전소설 중에 내용이 가장 방대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서유기』의 출현으로 새로운 신마소설(神魔小說)이 창작되기 시작하여 명청시기에 신마소설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리고 『서유기』 곳곳에 있는 비웃음과 풍자를 통해서 풍자소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서유기』는 신마소설의 최고봉이며 양적인 판타지의 원조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고전소설에도 많은 영향관계 속에서 위대한 문학작품을 공용하면서 뛰어난 소설문학의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서유기』는 서양에서도 인기가 많은 작품이다. 일찍이 번역본이 나와서 두터운 독자층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영화이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수용을 통해 『서유기』의 문학적인 가치를 더욱더 입증하고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국내에 발표된 『서유기』의 연구사를 정리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살펴보고 향후 이루어질 연구를 전망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서유기』가 한국에 유입되는 역사적인 과정과 수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백회본 소설 『서유기』의 모본인 『고본서유기』는 일찍이 고려말에 이미 한국에 유입되었다는 것을 중국어 교본 『박통사언해』 중 「차치국투성」이라는 내용으로 서유기사가 기술되어 있음을 증거로 알 수 있었다. 소설 『서유기』가 조선에 읽혀졌다는 것을 밝히는 최초의 문헌기록은 허균의 『성서부부고』 권13에 실려있는 西遊錄跋의 내용이다. 『서유기』를 접한 당시 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재미, 문장의 우아함, 교묘한 문체와 기발한 문학을 긍정하는 긍정론과 무익성, 정사를 어지럽히고 사악한 마음을 들게 하는 점, 황당함을 주장하는 부정론이 그것이다. 한국에 유입된 중국 원판본은 거의 청대의 陳世斌이 詮解한 목각본인 『西遊眞詮』이 제일 많다. 현재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西遊眞詮』과 『繪圖增像西遊記』가 바로 이 판본의 복각본이다. 이 두 가지의 원문 텍스트를 비교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바로 삽화이다. 삽화의 수량, 형상, 찬사(讚辭) 등에 차이가 있다. 『繪圖增像西遊記』는 『西遊眞詮』보다 그림이 더 많지만 인물평과 같은 찬사는 삭제되었다. 『서유기』의 중국 원판본은 백화(白話)로 쓰여졌는데, 이를 한글로 번역해서 필사본, 방각본, 구황자본 등 다양한 형식으로 향유했지만 현존하는 최초의 완역 필사본은 연세대에 소장된 『서유기』이다.

3장에서는 『서유기』가 한국에 유입된 후에 시대별과 주제별의 연구현황을 분석하였다. 시대별로 보면 『서유기』 연구의 시작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를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단지 『서유기』와 한국의 고전

소설간의 연관성을 간단하게 제시하는데 그쳤다. 광복 이후 『서유기』 연구는 국문학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고전소설과의 비교문학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중문학계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소설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중 수교라는 정치적인 배경 아래 중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서유기』 연구 역시 분야면으로는 수량면에서 모두 증가였다. 2000년에 이르러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서유기』 연구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연구 주제도 더 다양화되고 심도 깊은 연구도 많이 증가했다. 『서유기』의 주제별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비교문학에서부터 출발하여, 80년대는 중문학계가 주도한 주제나 사상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90년대에는 구조나 인물 연구와 같은 주제가 다루어지다가 2000년에 이르러서는 중문학계에서 이루어진 작품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이고, 동양적인 판타지의 원천으로써의 문화콘텐츠 연구도 활발하게 시작하였다. 이제 『서유기』 연구는 단지 국문학과와 중문학과에 제한되지 않고 문화콘텐츠 학과나 디자인 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 진행되고 있다.

비교문학 연구는 국내 『서유기』 연구의 첫걸음이니 만큼 후대의 다른 주제 연구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 『서유기』와 한국 고소설간의 영향 관계를 연구하는 비교 연구가 국문학계에서 진행되었는데 김태준부터 출발하여 이재수, 정규복, 이상익이 뒤를 이으면서 더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서유기』와 인도 작품의 친연성을 비교하는 연구는 중문학계에서 나선희를 중심으로 행해졌다. 2000년에 들어와서 비교 문학 관련 연구의 수는 많지 않지만,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이를 심화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제 및 사상 연구는 80년대부터 시작하여 이미 상당수의 연구 논문이 나왔다. 김영수, 윤태순, 서정희, 최귀묵 등이 주역이다. 김영수는 『서유기』가 유

불도 세 사상이 융합한 작품으로 보았고, 윤태순은 자아실현의 측면으로 『서유기』의 주제가 소아(小我)을 희생하여 중생을 위한 대아(大我)의 실현 과정으로 보았다. 서정희는 81년의 의의, 불교의 시각, 도교의 오행사상과 수행법 등 『서유기』의 주제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을 했다. 이 밖에도 안지영은 아동문학 차원에서의 선악 대립, 최귀목의 여성정절문제의 인식 등 새로운 시각으로 『서유기』의 주제와 사상을 분석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인물 연구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유기』의 연구 주제이다. 『서유기』 연구 논문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인물별로 다시 분류하면 손오공 관련 연구가 제일 많고 다음에는 삼장, 저팔계, 사오정, 백용마의 순서로 다수 발표되었다. 주인공 격인 취경단 인물 다섯 명 이외에는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는 신불과 방해자인 요마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를 잡았다.

2000년 이후 『서유기』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재창작되면서 동양적 판타지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한 문화콘텐츠학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화콘텐츠 차원의 연구는 『서유기』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공간, 구조, 사건 등 주제의 연구는 발표된 논문의 수량은 많지 않지만 한국의 『서유기』 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나선희와 박승혜가 시행한 공간 관련 연구는 중국 본토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최초의 주제이며 그 연구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하겠다. 그 밖에 『서유기』의 구조 연구의 대부분은 『서유기』의 대립 구조와 그 의미에 주목하였다. 연구자들이 주목한 『서유기』의 주요 사건은 윤태순의 『서유기』 대노천공과 송정화의 식인(食人)사건, 『서유기』 주에 나타난 웃음, 인삼과(人蔘果) 사건 등이며 사건의 내용, 기원,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의 『서유기』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를 지나 수준이 높고 한국적인 특성을 가진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예를 들면 한중소설의 영향관계를 비교하는 비교문학, 수용양상, 주제 및 사상, 공간 연구를 들 수 있다.

『서유기』 연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서유기』의 매력의 원천을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제의 다양성, 인물의 생동감, 81년의 독립성, 문화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유기』의 연구사를 전면적으로 살펴보려면 『서유기』 연구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의 연구사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국내의 『서유기』 연구 현황만을 살펴보았다. 나머지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참고 문헌

### 1. 원전

- 吳承恩 著, 李飛天 교주, 『西遊記』(상, 하권), 中華書局, 2014년.  
吳承恩 著, 서울대학교 서유기번역연구회 번역, 『서유기』(10권), 솔, 2004년.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3년.  
『朴通事諺解』(영인본), 서울大學校奎章閣 출판, 2004년.  
허균, 『惺所覆瓿稿』,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간. 1961년.  
吳承恩(明)撰 陳士斌(清)註解, 『西遊真詮』, 校經山房, 光緒10년(1884년).  
吳承恩(明)著; 陳士斌(清)銓解, 『繪圖增像西遊記』, 上海廣百宋齋, 光緒17(1891)년.  
김장환, 박재연, 김영 교주, 『서유기』, 鮮文大學校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5년.  
『서유기어록』, 백두용, 1책, 京城翰南書局, 1918년.

### 2. 단행본

- 魯迅, 『中國小說史略』, 商務印書館, 2011년.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년.  
민관동, 『中國古典小說 및 戲曲 研究資料 總集』, 학고방, 2011년.  
이상익, 『한중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 삼영사, 1980년.

### 3. 논문

- 강경구, 「『西遊記』, 용의 출몰, 말나의 그림자」,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2집,

2012년.

강경구, 「『서유기』 孫悟空과 諸神의 전투에 대한 불교적 독해」, 중국인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No.6, 2016년.

강경구, 「『西遊記』 豬八戒 형상의 불교적 독해」, 중국학 제54집, 2016년.

權赫贊, 「『홍길동전』에 나타난 『서유기』 서사 양식 고찰」, 中國小說論叢 제36집, 2012년.

磯部 彰著, 나선희역 「『西遊記』 研究史」, 東亞文化 제33집, 1995년.

김강, 「한·중·일 만화 캐릭터디자인 연구」, 忠南大學校 석사논문, 2010년.

김송죽, 「『西遊記』가 韓國 古小說에 끼친 影響」, 仁川大學校 석사논문, 2001년.

김영수, 「『西遊記』의 宗教思想研究」, 延世大學校 석사논문, 1989년.

김지현, 「『西遊記』의 수용양상과 문학적 보편성」, 高麗大學校 석사논문, 2013년.

김태관, 「唐太宗入冥 고사를 통해 본 『서유기』의 형성과정 연구」, 중국학 제27집, 2006년.

김홍겸, 「『西遊記』 속 손오공의 사회화 과정」, 東方學 제34집, 2016년.

나선희, 「『西遊記』 研究-호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1년.

———, 「『西遊記』 출현의 사회문화적 배경 : 명대 인쇄출판의 성황과 문학담당층의 증가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제34집, 1999년.

———, 「明代小說 『西遊記』에 나타나는 세계와 그 의미」, 中國文學 제36집, 2001년.

———, 「라마야나, 계사르전, 『서유기』」, 中國文學 제72집, 2012년.

———, 「『西遊記』 研究--싸움의 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大學院 석사논문, 1992년.

———, 「인도서사시 『라마야나』와 중국소설 『西遊記』의 관련성에 대해」, 中國文學 제26집, 1996년.

———, 「중국 소설 속에서 살아온 잡종생물- 『서유기』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제30집, 2002년.

閔寬東, 「『西遊記』의 國內流入과 板本 研究」, 中國小說論叢 제23집, 2006년.

박승혜, 「『西遊記』에 나타나는 總體的인 世界 構成과 個別的인 人物들의 葛

- 藤 様相 및 文學性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8년.
- 박종천, 「『서유기』 콘텐츠의 MSMU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5집, 2012년.
- 朴春迎, 「『西遊記』 이전 猪八戒의 人物形象 研究」, 中國語文論譯叢刊 제17집, 2006년.
- 박춘영, 「『西遊記』의 成書過程과 主要 人物形象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05년.
- , 「『西遊記』의 沙悟淨 人物 形象 研究」, 中國小說論叢 제21집, 2005년
- 서신혜, 「『三韓拾遺』와 『西遊記』의 친연성과 변별성」, 정신문화연구 제28(2), 2005년.
- 서정희, 「『西遊記』의 주제 연구」, 中國學研究 제15집, 1998년.
- , 「『西遊記』에 나타난 天理와 人欲의 대립구조」, 中語中文學 제51집, 2012년.
- , 「『西遊記』의 緊箍兒 연구」, 中國學研究 제46집, 2008년.
- , 「『西遊記』의 孫悟空 연구」, 中語中文學 제42집, 2008년.
- , 「『西遊記』의 唐三藏 연구」, 中語中文學 제38집, 2006년.
- , 「『西遊記』의 唐三藏 연구 II」, 中國學研究 제38집, 2006년.
- , 「『西遊記』의 주제연구 -內丹說의 수행이론을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제33집, 2003년.
- , 「『西遊記』의 주제연구 -內丹說의 수행이론을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제33집, 2003년.
- , 「『서유기』 81년의 의의 연구」, 중국학 제11집, 1996년.
- , 「『서유기』의 요괴(妖怪)연구」, 中國學研究 제49집, 2009년.
- , 「서평 『서유기』」, 중국어문학 제46집, 2005년.
- , 「심학(心學)과 『서유기』의 주제 연구」, 중국어문학 제62집, 2013년.
- , 『西遊記』의 欲望觀 : 妖怪들의 欲望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 2010년.
- , 「『西遊記』 요괴의 來源과 法力연구」, 中國學研究 제42집, 2007년.
- 서혜은, 「조선 시대 『서유기』의 개작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어문논총 제65집, 2015년.

- 成始勳, 「『西遊記』의 孫悟空 人物 형상 小考」, 培花論叢 제20집, 2001년.
- 송원찬, 「『서유기』를 통해 본 문화원형의 계승과 변용」, 한국중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제11집, 2014년.
- , 「중국고전소설의 SF적 해석 가능성에 대하여」, 中國小說論叢 제30집, 2009년.
- 송정화, 「『西遊記』의 兒童文學特性 - 對醜惡的追求爲中心」, 中國語文論叢 제47집, 2010년.
- , 「한중일(韓中日)대중문화에 나타난 사오정(沙悟淨) 이미지의 특징」, 中國語文學誌 제34집, 2010년.
- , 「『서유기』에 나타난 식인(食人)의 의미에 대한 고찰-신화(神話), 종교(宗教)的 분석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 제37집, 2011년.
- , 「『서유기』에 나타난 웃음에 대한 고찰 - 낮섬과 추악함을 통한 전복(顛覆)의 미학」, 中國語文學誌 제36집, 2011년.
- , 「한중일(韓中日) 대중문화에 수용된 삼장(三藏) 이미지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論叢 제56집, 2013년.
- , 「『서유기』 삽시(插詩)의 도교적 특징과 문학적 기능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論叢 제65집, 2014년.
- , 「『서유기』의 인삼과(人參果) 고사(故事)의 형성과정에 대한 종교, 문화적인 탐구」, 中國語文論叢 제73집, 2016년.
- 송진영, 「『서유기』 현상으로 본 중국 환상서사의 힘」, 中國語文學誌 제33집, 2010년.
- , 「『서유기』 현상으로 본 중국 환상서사의 힘」, 中國語文學誌 제33집, 2010년.
- 신흥옥, 「디지털동화책 『서유기』 제작연구」,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5년.
- 안지영, 「『西游記』의 兒童文學的 性格 研究」, 高麗大學校 석사논문, 1996년.
- 안창현, 「문화콘텐츠 원천소스로서 『서유기』의 구조분석과 활용 전략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3년.
- 양건식, 「소설 『서유기』에 취하여」, <조선불교업보> 제3호, 1917년.
- 원청사, 「현대 애니메이션의 중국 전통문화요소 활용과 창조성 : 애니메이션 <몽키킹:영웅의 귀환>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16년.

- 유수민, 「明代 神魔小說 『西遊記』와 『封神演義』의 二郎神 형상 小考」,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No.4, 2016년.
- 윤태순, 「『서유기』 대노천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0년.
- , 「『서유기』 신마고」, 중국학연구 제8집, 1994년.
- , 「『西遊記』 研究」, 成均館大學校 박사논문, 1995년.
- , 「오승은 소고- 『서유기』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제3집, 1981년.
- 李在秀, 「韓國 小說 發達 段階에 있어서 中國小說의 影響」, 慶北大學校論文集 제1집, 1956년.
- 이상익,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박사논문, 1980년.
- , 「충격과 조화 : 한중소설의 비교연구 (기4) - 『서유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제2호, 1992년.
- 이승수, 「고전문학과 공간적 상상력 : 『삼한습유(三韓拾遺)』의 공간과 주제 - 『서유기』와의 대비를 곁하여」, 古典文學研究 제31집, 2007년.
- 이시찬, 「손오공 형상에 대한 해체주의적 고찰」, 中語中文學 제54집, 2013년.
- 이정재, 「元明代 祭儀演行에 수용된 『西遊記』 敍事の 성격」, 中語中文學 제56집, 2013년.
- 竺洪波, 「四百年『西遊記』學術史」, 華東師範大學 博士論文, 2005년.
- 장열, 「한·중 소설에 나타난 용왕(龍王) 이미지 비교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논문, 2016년.
- 정규복, 「『서유기』와 한국고소설」, 亞細亞研究 제15집, 1972년.
- , 「『서유기』와 왕랑반혼전」, 어문논집 제19,20(1), 1977년.
- , 「王郎返魂傳“與“古本西游記“」, 한중인문학연구 제2집, 1997년.
- , 「왕랑반혼전과 『고본서유기』」, 比較文學 別卷, 1998년.
- 정동국, 「『西遊記』의 人物之研究」, 外國어교육연구 제3호, 1988년.
- 정민경, 「디지털시대 『서유기』의 교육적 변용」, 디지털콘텐츠와 문화정책 제5집, 2011년.
- 鄭元祉, 「『西遊記』의 構造와 論理」, 中國人文科學 제15집, 1996년.
- 정원지, 「명대 희곡 『서유기』의 제의적 구조」, 중국어문학 제33집, 1999년.
- 정재서, 「중국 환상문학의 역사와 이론」, 中國語文學誌 제8집, 2000년.

- 최수웅, 「손오공의 이야기가치와 문화콘텐츠적 활용양상 연구」, 인문콘텐츠 제23집, 2011년.
- 崔漢鎔, 「『西遊記』에 나타난 宗教要素」, 중국어문학논집 제57집, 2009년.
- 최한용, 「『西遊記』의 神佛과 妖魔關係 研究」, 延世大學校 석사논문, 1996년.
- , 「『西遊記』의 神佛形象 研究」, 延世大學校 박사논문, 2010년.
- 풍리화, 「중국 전통 소설 『서유기』의 캐릭터 디자인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석사논문, 2008년.
- 한우상, 「韓國的『紅樓夢』研究概況」, 嶺南대학교 중문과 석사논문, 2016년.
- 한령, 「중국 『서유기』 테마파크 조성방안」, 韓國外國語大學校 석사논문, 2008년.
- 홍성초, 「『西遊記』의 形成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5년.
- , 「『西游記』之時間背景的構成方式及其意義」, 中國語文論叢 제75집, 2016년.
- 홍수진, 「『西遊記』의 板本 및 國內流入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7년.

#### 4. 기타 자료

- 北京晚報, ‘西遊電影9部待映 西遊記養活多少電影公司’, 2016년 01월 13일.  
(<http://ent.163.com/16/0113/14/BD7F258P000300B1.html>)
- 田曉鵬, ‘大聖歸來’의 豆瓣網(더우반왕) 평점 8.2.  
(<https://movie.douban.com/subject/26277313/>)

## Abstract

The editions and research status of Journey to the  
west in Kroea

SUN, YUANLI

Dep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dvisor: Prof. Shim, Chi Yeol

The aim of this dissertation is to study on the meaning and the features of “ Journey to the West” based on the prior studies. Although it is a novel published decades ago dating back to the Ming Dynasty, it still enjoys tremendous popularity among readers. The novel, “Journey to the West”, has long been recorded not only in China but also on text books in the late Goryeo Kingdom, which demonstrates that Korean have showed their interests in this very novel from a long time ago. However, up till now there has been no such dissertation that systematically analyzes all existing studies on “Journey to the West”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studies on “Journey to the West” published after 1970

in South Korea and categorizes various studies systematically, hoping to make a little contribution to the future studies in this area.

At the very beginning of this dissertation,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Journey to the West” to South Korea is introduced based on existing documents. Then, this dissertation classifies studies on this novel published after liberation, especially after 1970s. Then, as for the relating dissertations published till 2016, this study sorts them according to different themes, namely, comparative literature, theme and thinking, character study, derivative industry and other study focuse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the studies on “Journey to the West” in South Korea are compared to those from China in order to further research on the its literature value. At the end of this dissertation, the meaning and the value of the masterpiece, “Journey to the West”, are given with much appreciation of the valuable research documents and existing studies.